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개념 2022

이론연구 결과보고서

# 목차


Ⅰ. 서론 ..... 05

Ⅱ. 문헌 연구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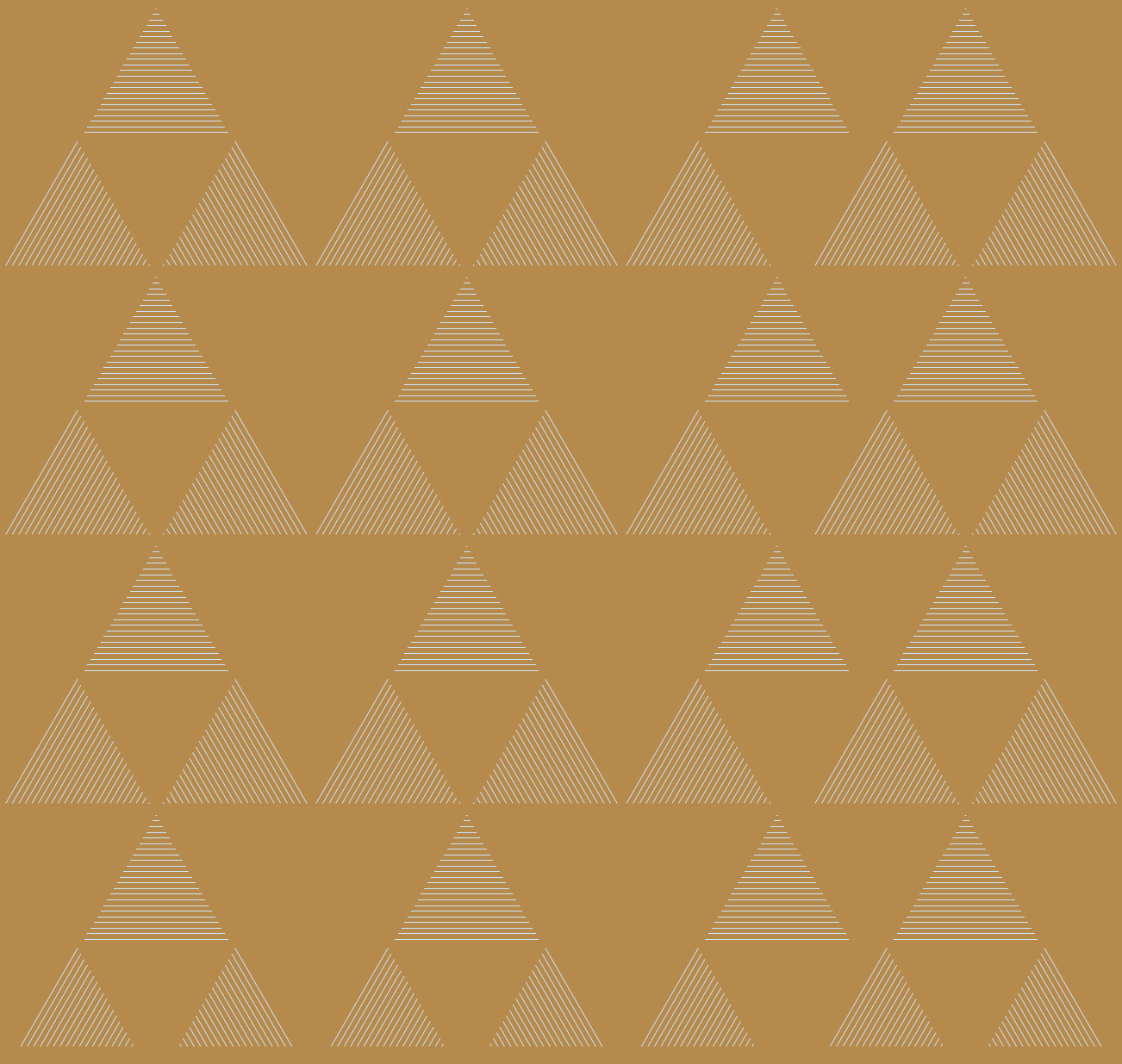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Ⅲ. 전문가 회의 ..... 25

Ⅳ. 설문조사 보고서 ..... 39

Ⅴ. 컨퍼런스 ..... 53

Ⅵ. 결론 및 향후 계획 ..... 67

참여연구진 ..... 73



# I

# 서론

# I

# 서론

## 연구 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지난 50년간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목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세계유산목록의 가장 최근 이슈 중 하나는 유산이 다중 시각의 역사(multi-layered history)와 기억을 반영하며 유산의 가치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당사국으로부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세계유산에 대하여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당사국 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산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여러 연구와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카테고리2센터 협정 체결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정식 설립되었다. 센터는 첫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규명하고 전달하기 위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 '이론연구: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이 문화 유산의 대중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방법뿐만 아니라 유산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여러 가치를 규명할 수 있도록 이에 더 집중하는 변화된 패러다임도 반영한다.

위 언급한 연구의 일환으로,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전문가 회의(Definitions and Concept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Working Group)는 유산 해석과 설명 및 '포용적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와 정의 문장 설정을 목표로 한다. 2008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이 문화 유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회의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 유산까지 논의에 포함시키고, 유산 해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지역적 관점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문가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유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더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배운 점들은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며, 그 정의는 센터의 다른 활동의 기초로서 활용될 것이다.

## 배경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지난 50년간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유네스코는 1972년에 세계유산협약을 비준하여 유네스코의 국제적 의제를 달성하고, 세계유산협약 내 주된 사업인 세계유산목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유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세계유산 목록이 모든 지역별·유형별 유산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유네스코의 역할은 이 불균형, 특히 1994년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에서 처음 제시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2002년에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네 가지 전략목표로 4C(보존(Conservation), 소통(Communication), 신뢰(Credibility), 역량강화(Capacity-building))가 발표되었다. 이후 2007년, 여기에 지역 공동체(Community)가 더해져 5C로 확정되었다. 지역공동체에 많은 중점을 두었지만,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권리 소유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우선순위도 인정했다. 한편, 또 다른 유네스코의 협약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상호 이해와 국제 협력을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유산이 정치적 목적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생기면서 유산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세계유산 등재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유산목록의 가장 최근 쟁점 중 하나는 유산이 다중 시각의 역사(multi-layered history)와 기억을 반영하며 유산의 가치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당사국으로부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세계유산에 대하여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당사국 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산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은 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모든 유산의 해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유산의 전체 역사 그리고 다중시각적 역사를 반영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와 유네스코 국가별 위원회는 여러 연구와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부 유산 학자들은 세계유산을 '기억의 장소(the Sites of Memory)'라고 주장하며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유산이 기억될 수 있다는 담론과 연구를 역설해왔다. 특히 당사국과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분쟁과 관련된 기억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지 여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산 해석은 유산의 가치를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세계유산목록을 통해 대표되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산 공동체에서 유산 해석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인류의 협력과 공동체 간 합의 도출을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당사국들 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 23일,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카테고리2센터 협정 체결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가 정식 설립되었다. 센터는 첫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규명하고 전달하기 위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 '이론연구: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이 문화 유산 청중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방법뿐만 아니라 유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가치를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변화된 패러다임도 반영한다.

## 목표

센터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학술 및 정책 연구 진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을 통한 연대 및 역량 강화와 정보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센터 추진단 당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적 계획 연구를 수행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의 개념과 정의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센터의 추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센터가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산 해석과 설명의 역할이 전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산 해석의 목표와 개념이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의 교육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제 유산 해석이란 활발한 대화를 바탕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유산 공동체와 이해관계자가 유산의 가치를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두번째로 이제는 유산의 가치를 명시하고 이해하며, 유산 및 이해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유산의 역할이 복잡해지고 유산 가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산 가치에 대하여 규명하고, 이해하며, 의견을 전달하고 환류 하는 유산 해석의 전 과정이 새로운 세대의 참여와 경험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유산가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셋째, 이렇게 복합적인 결과로 현재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유산 해석에 대한 접근법이 확장되어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하게 되면서, '해석'과 '설명'이 혼용되고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가 무엇이고 각각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명확해 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에 유산에 대한 해석적 계획을 권고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를 명시하고 기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센터가 카테고리 2 기관으로서 유산 해석 및 설명 연구를 수행하여 개념의 공백을 메우고, 유네스코의 정책 목표에 기여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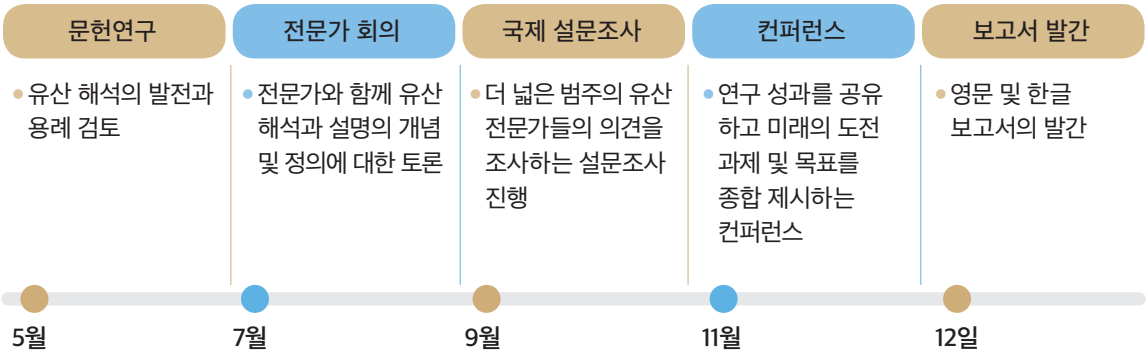
1)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분석하고,

2)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탐색하며,

3) 유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여 정의와 개념을 재조명하고,

4) 세계유산 시스템에 제공될 유산 해석과 설명의 새로운 정의를 위해 권고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 구조 및 방법론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1)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문헌 연구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2008년 ICOMOS 문화유산의 해석 및 설명을 위한 헌장(이하 '에나메 헌장') 비준 전후로 유산 분야에서 해석 및 설명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본다. 문헌 연구 단계에서는 해석과 설명에 대한 주요 인식론과 유산 분야에서 '해석'이라는 용어의 실질적 사용 및 기존 개념적 정의를 탐구한다. 최근 활용되는 정의에서 유산 해석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헌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전문가 회의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 및 개념 전문가 회의(Definitions and Concept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Working Group, 이하 '전문가 회의')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유산 해석, 유산 설명과 '포용적인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문장 설정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주로 유산 해석과 설명,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정의와 개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8년 에나메 헌장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회의는 세계유산 협약과 가장 최근의 '자연-문화'

논의를 반영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지역적 관점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 회의는 해석 전문가(그룹 1)와 유산 전문가(그룹 2)로 나뉘어 유산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한다.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의 회의가 운영되었다. 1차와 2차 회의는 각 그룹별로 진행되었고, 3차와 4차 회의는 두 그룹의 합동 회의로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고 두 그룹 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와 2차 회의**: 문헌 연구 결과 공유, 개념의 인식론 검토, 정의 문장의 구조 논의
- **3차 회의**: 개념적 범위와 필요한 키워드, 보존과 관리 과정에서의 유산 해석
- **4차 회의**: 정의 문장 초안 수정

### 3) 국제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유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 이 설문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유산 전문가들이 유산 해석 및 설명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고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된 정의 초안의 내용과 구조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3일간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센터 네트워크에 포함된 학자 및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유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오픈링크가 SNS에 공개되어 있어 유산 해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문에 응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는 크게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시한 '유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개념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유산 해석과 설명을 본인의 단어로 정의하라'고 질문하였다. 세 번째로전문가 회의의 정의 문장 초안을 보여주며 각 '키워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에게 '원칙을 위한 필수적인 키워드'를 질문하였다. 설문조사의 모든 데이터는 향후 연구 프로젝트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 4)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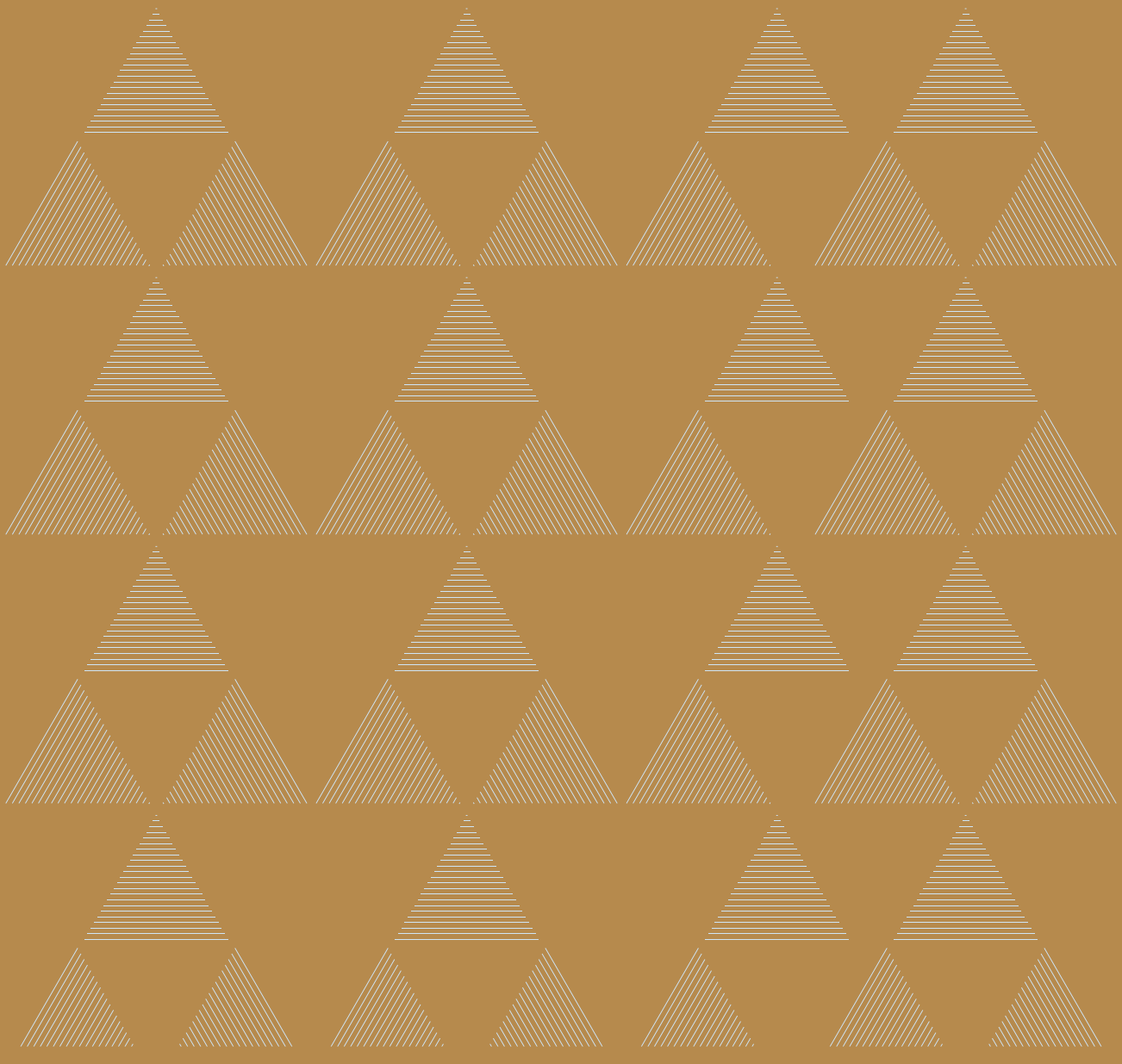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022년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의 한 세션으로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컨퍼런스가 11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를 중심으로 2022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원칙과 지침 수립을 위한 향후 방향과 고려사항에 대해 유산 전문가와 청중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세션이었다.

발표 세션에서 문헌 연구,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유산 설명 연구 방법과 이에 따른 연구 결과들을 청중과 공유하였다. 토론 세션에서는 패널들이 거버넌스 확립, 해석과 유산 해석의 명확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다양성 반영,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한 윤리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 결과

본 연구는 세계유산 분야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시되어 온 접근방식과 인식론을 반영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정의를 재검토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여 유산 해석 및 설명 분야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분야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네 단계(문헌 연구, 전문가 회의, 전문가 설문조사, 컨퍼런스)는 다양한 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원칙과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교훈들이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며, 새로운 정의가 센터의 다른 활동에도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 II

# 문헌 연구

## 유산 해석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발전

II

# 문헌 연구
## 유산 해석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발전

### ◆◆ 연구 개요

본 문헌 연구에서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적 발전을 살펴보았다. 또한 2008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비준 전후로 유산 분야에서의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주요 인식론적 접근법과 유산 분야에서의 '해석'에 대한 기존 정의를 도출하였다. 최근 유산 해석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관련 문헌에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산 해석 및 설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유산 해석 및 설명을 살펴보고,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기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출발점이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 유산 분야에서 해석과 설명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기술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함으로써 센터가 유산분야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 1. 유산 분야에서 '해석' 개념의 출현 및 발전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해 선행된 문헌들에 따르면, 유산 해석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는 프리먼 틸든(Freeman Tilden)이 가장 먼저 정립하였다. 틸든(Tilden)의 저서, 'Interpreting Our Heritage(1957)'에는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와 6가지 원칙 등 유산 해석에 대해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틸든의 이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일부 철학자와 자연 보호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 한 명은 자연 보호가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존 뮤어(John Muir)이다(Jameson, 2020; Wolfe, 1979). 뮤어(Muir)에 이어, '도시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 간 연결을 강조한 초기 자연 해설가이자 자연주의자 중 한 명인 에노스 밀즈(Enos Millls)도 틸든(Tilden)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Jameson, 2020, p.1). 이처럼, 뮤어, 밀즈(Millls)와 틸든이 제시한 보존과 보호를 위한 해석이 유산 해석 분야의 시발점이 되었다.

틸든은 유산 해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유산 해석은 단순히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대상을 활용함으로써 직접 경험을 제공하고, 예증적인 매체를 통한 의미와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틸든, 1957, p.8)

또한 틸든은 유산 해석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원칙들은 후에 학계와 여러 기관에서 발전시켰다. 틸든의 원칙은 인류가 주변 환경을 존중해야 하며 유산 해석은 환경의 공적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유산에 대한 대중 해석은 자연 보호를 위한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사람들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고 암시한다(Tilden, 1957; Jameson, 2020 재인용).

20세기 후반에는 '헤리티지 붐'으로 유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여러 유산 관련 분야로 유산의 역할이 다양화되었다(Harrison, 2012).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협정, 헌장 및 관련 문서들이 비준되었다. 유산 해석은 이러한 국제적, 범정부적 협력 프로젝트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유산에서의 개인적 경험이 긴밀하게 연결된 교육적 성취를 위한 학제간 활동이었다(Steward and Kirby, 1998, p.30). 공동체 협력, 참여 및 대중들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산 해석의 초점이 '사실적 정보의 나열'에서 방문객과 유산 간 '감정적-지적 연결'을 맺는 것으로 옮겨갔다(Jameson, 2020, p.2-3).

아블렛과 다이어(Ablett& Dyer)는 틸든과 그의 후속 학자들이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유산 해석을 '소통(communication)'의 한 형태로 재확립했다고 주장한다(2009). 이들에 따르면, 유산 해석은 유산의 '해석 관련 직원'이 방문객에게 유산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은 유산 해석이 막대한 교육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유산 해석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가다머(Gadamer)와 하이데거(Heidegger)의 철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틸든의 해석 이론을 대체하는 '해석학적 유산 해석'을 제안한다. 인간은 보존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제시된 방식만 활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인지적 행동은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이해에 기반한다. 그러나, 유산 해석의 목적과 해석의 역할을 깊이 고려하여 해석학적 학문의 갈래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석학은 유산에 관한 모든 요소가 '해석'되도록 '유산 해석'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기준이나 해석 근거가 없다면, 해석학은 유산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또는 더 넓은 유산 공동체가 얼마나 그에 동의하는지에 관계없이 유산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수용하게 된다.

## 2. 2008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에나메 헌장)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 헌장은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던 2002년 전까지는 물리적 보존과 유산 관리에 치중되어 있었다. 현대적 관점의 유산 활용은 특히 관광 부문에서 지역 공동체와 공동체원들의 삶을 위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유산의 해석과 설명 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원칙과 방법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유산의 용도와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유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 개선에 대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유산 보존과 관리 현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코모스 문화유산 해석과 설명 학술위원회(이하, 'ICOMOS ICIP')의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인 존 제임슨(John J. Jameson)은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의 전달에 중점을 둔 원칙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2020). 또한 그는 유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와 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방법과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2020).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일부 국제기구와 기관들은 해석과 설명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새로운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이코모스 미국위원회, 대중 고고학 및 유산 해석을 위한 에나메센터(the Ename Centre for Public Archaeology and Heritage Presentation), 그리고 유산 전문가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헌장을 만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2005년 제8회 이코모스 미국위원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코모스 에나메 헌장을 비준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합의에 따른 헌장의 배경, 목표와 일부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찰스턴 선언(Charleston Declaration)이 발표되었다. 2008 에나메 헌장은 '해석'과 '설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정의들이다.

**2008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

'해석'은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활동이다.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공개강의, 현장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현장 밖의(off-site)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해석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가 해석에 포함될 수 있다.

'설명'은 문화유산에서 해석적인 정보 배열, 사람들의 접근, 또는 해석용 시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획된 해석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보 제공 패널, 박물관 등에서의 전시, 형식을 갖춘 도보 투어, 강의, 가이드 투어, 멀티미디어의 활용 및 웹사이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008 에나메 헌장의 정의들이 텍스트로 가장 많이 인용되지만, 헌장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2005 찰스턴 선언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5년 찰스턴 선언은 심포지엄 관계자들이 유산 해석과 설명을 당시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5 찰스턴 선언**

'설명'은 일반적으로 학계, 디자인 회사(design firm) 및 유산 전문가가 계획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물리적 접근 권한의 배열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로 단방향 의사소통 방식이다.

반대로 '해석'은 문화유산에 관한 활동, 반영, 연구와 창작의 총체를 의미한다. 방문객, 지역 및 공동체 집단과 다양한 연령대와 교육 배경을 가진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문화유산을 정적인 기념물이 아닌 역사에 대한 배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과 문화/세대 간 대화를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ICOMOS ICIP의 초대 회장인 닐 실버만(Neil Silberman)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공동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문화유산에 '대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산 해석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2006). 2008 에나메 헌장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에 관한 상세한 논의 내용이 완전하게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실천적 원칙을 제시하고,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 증대 및 문화 다양성 존중 등 국제 유산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유산 해석'에 대한 최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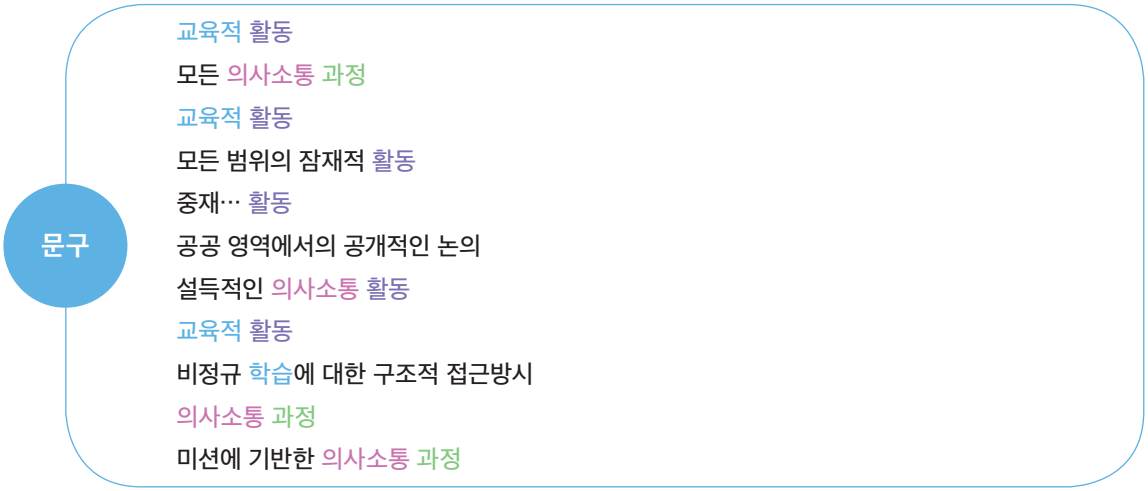
틸든이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와 원칙을 제시한 이후로, 2008 에나메 헌장을 포함하여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다음 표는 다양한 저자, 학자 및 기관의 유산 해석 정의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모든 정의는 구절 단위로 나뉘어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유산 해석의 정의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명사와 각 정의에 포함된 해석의 목적, 대상과 방법을 알 수 있다.

| 참조 | 정의 |
|---|---|
| **Freeman Tilden**<br>*Interpreting our Heritage (1957)* | 단순히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대상을 활용함으로써 직접 경험을 제공하고, 예증적인(illustrative) 매체를 통해 의미와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활동 |
| **Interpretation Canada**<br>*(1976, Online)* | 대상, 인공물, 지형 또는 유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 및 자연유산의 의미와 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소통 과정 |
| **Beck and Cable**<br>*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1998)* | 해석은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이다. 대화, 가이드 투어, 전시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석은 우리의 이해와 평가를 향상시켜 유산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
| **ICOMOS**<br>*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Ename Charter)(2008)* | 해석은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활동이다.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공개강의, 현장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장 밖의(off-site)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해석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가 해석에 포함될 수 있다. |
| **Desvallées and Mairesse**<br>*Key Concepts of Museology (2009)* | 중재는 프랑스어 'médiation'을 번역한 것으로, 박물관에서는 '해석'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중재는 당사국을 화해시키거나 합의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박물관에서 중재란 박물관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방문객과 맺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
| **Neil Silberman**<br>*Process Not Product: The ICOMOS Ename Charter (2008) and the Practices of heritage Stewardship (2012)* | 해석은 공공 영역에서의 공개적인 논의이며 집단적 정체성, 사회적 규범과 유산의 중요성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에 대한 심의적 담론이다. 이러한 담론은 정해진 가이드 투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
| **Gianna Moscardo**<br>*Interpretation. In Encyclopaedia of Tourism(2014)* | 유산 해석은 관광지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한 가이드 투어, 브로셔, 전시회와 안내판 정보 등의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

| 참조 | 정의 |
|---|---|
| Marek Nowachi<br>*Interpreting our Heritage (1957)* | 유산 해석은 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다. |
| Interpret Europe (Online) | 유산 해석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구조화된 비정규 학습방식이다. 해석은 자연 보호구역, 역사 유산이나 박물관 등 유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상물과 방문객 간 연결 고리를 만들어준다. |
| Association for Heritage Interpretation (Online) | 해석은 유산, 컬렉션, 사건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
|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Online) | 해석은 관객의 관심과 자원에 내재된 의미 사이의 감정적-지적 연결을 형성하는 전달 기반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
| Interpretation Australia (Online) | 해석은 위치, 자연 또는 역사 유산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여 방문객이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 해석은 방문객에게 참여적이고 특별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
| Swedish Centre for Heritage Interpretation (Online) | 자연 해석(스웨덴어로 'naturvägledning')은 방문객이 자연 및 문화 경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명사형 구절

대부분의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는 이 표에 나열된 문구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여러 정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정의에 '교육' 또는 '소통'이 포함된 것은 놀랍지 않다. 또한 일부 정의에서는 유산 해석을 '활동' 또는 '행위'로 간주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주체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반면, 유산 해석이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는 정의들도 있었다. 유산 해석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해석의 과정에서 이를 누가 실현할지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 목적

여러 정의에 명시된유산 해석의 목적은 여러 가지 핵심 문구들에 다양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의에서 명시된 목적으로는 '정보 제안', '이해 촉진/장려', '의미 밝히기'와 유산 해석을 통한 '관계' 형성 등이 있다.

문구

의미와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의미와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의미를 밝히기 위해… 우리의 이해와 평가를 향상시켜 유산과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호
대중 인식과 이해 높이기
당사국을 화해시키거나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집단 정체성,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심의적 담론… 개인의 자유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
중요한 아이디어 전다… 연결성 형성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
관심에 내재된 의미 사이의 감정적-지적 연결을 형성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위해 특별하고 참여적이며 의미 있는 경험을 형성
방문객이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 해석의 내용 [무엇을 해석하는가]

해석의 내용은 '무엇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구들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정의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컬렉션, 유산, 대상, 장소, 경관, 심지어 박물관까지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이 포함된다.

문구

물체(object)
자연 및 문화유산 …물체(object), 예술품(artifact), 경관 또는 유산
자연과 문화 자원 …역사적 장소와 자연의 경이로움
문화유산
박물관
유산
방문객들의 관광지에서의 자연 및 문화유산
물체(object) 그리고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및 문화유산 제공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 자연 보호 구역, 역사적 장소 또는 박물관 등
유적, 컬렉션 또는 사건
관객의 관심과 자원에 내재된 의미
장소, 자연 또는 역사적 장소
자연과 문화 경관

### 해석 방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부 정의는 유산 해석의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정의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고, 유산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석 방법 예시를 제시하면 해석 실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접근이 어려운 정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산 해석을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일부 정의에서는 세부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원칙과 지침 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구**

- 단순히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대상 활용과 예증적인(illustrative) 매체를 통해
- 직접 참여함으로써
- 대화, 가이드 투어, 전시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해석
-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공개강의, 현장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현장 밖의(Off-site) 전시,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해석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가 해석에 포함
- 가이드 투어, 브로셔, 전시회와 안내판 정보 등

### 대중과의 관계

일부 정의에서는 '대중과의 관계'가 특별히 언급되는데, '대중'과 공동체가 유산 해석의 필수적인 주요 이해당사자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계유산 부문에서 공동체는 유산 관리 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과 단계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

**문구**

- 문화 및 자연 유산이 대중에게 갖는 의미와 관계
- 대중에게 박물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방문객과 맺어주는 것
- 공공 영역에서의 공개적인 논의이며 집단적 정체성, 사회적 규범과 유산의 중요성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에 대한 심의적 담론

## 4. 결론 - 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가?

21세기 초부터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전 과정에서 유산 해석은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특히 세계유산 분야에서의 유산 해석과 설명은 유산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유산 공동체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유산 가치를 어떻게 해석 및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쟁점이다. 당사국과 다양한 공동체 간 발생하는 유산 해석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에 해석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유산 해석에 대한 현재 정의에서 유산 해석을 '교육 활동' 또는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어떻게 가치를 해석했는지에 대한 것이 일부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최근 유산 해석에 대해 이러한 쟁점이 대두되면서 유산 해석의 범위와 역할은 교육적 활동이나 소통 과정을 벗어나 다양한 유산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과 유산 간 참여적인 상호작용으로 변하고 있다.

다수의 유산 학자들에 따르면 유산은 더 이상 신성시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유산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지만, 이 행동이 모든 유산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오늘날의 유산 분야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자 및 권리 보유자는 유산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 가치를 발전시키는 참여적인 '주체'이다. 유산 공동체는 더 이상 유산 가치를 '전달' 또는 '교육'받는 대상이 아니라, 유산 가치를 창조하고 '해석'하는 주체로 간주된다.

유산 분야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산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거나 기존 정의를 수정해야 할 시점이며, 이것이 바람직한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 유산에 기여할 것이다.

본 문헌 연구는 주로 유산 해석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산 해석이 세계유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유산 해석의 목적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2008 에나메 헌장이 해석과 설명의 개념을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설명' 개념에 대하여 배경과 기능에 중점을 둔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6장에서 향후 연구 계획을 통해 센터의 심층연구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다룰 것이다.

## Reference


Ablett&Dyer, 2009, Heritage and hermeneutics: towards a broader interpretation of interpreta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Vol.12, No.3, pp.209-233

Beck and Cable 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1998)

Desvallées and Mairesse, 2009, Key Concepts of Museology, ICOM ICOFOM (International committee of ICOM for Museology)

Harrison, 2012, Late-modernity and the heritage boom, in Heritage: Critical Approaches, Routledge

ICOMOS, 2008,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Ename Charter)

Jameson, 2020,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n C.Smith (ed.), Encyclopedia of Global Archaeology, Springer Nature Switzerland

Moscardo, 2014, Interpretation. In Encyclopaedia of Tourism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Interpretive Development Program, 2007,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Curriculum Content Narrative, pp.1-24.

Nowachi, 2021,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ustainability 2021, 13, 4383, p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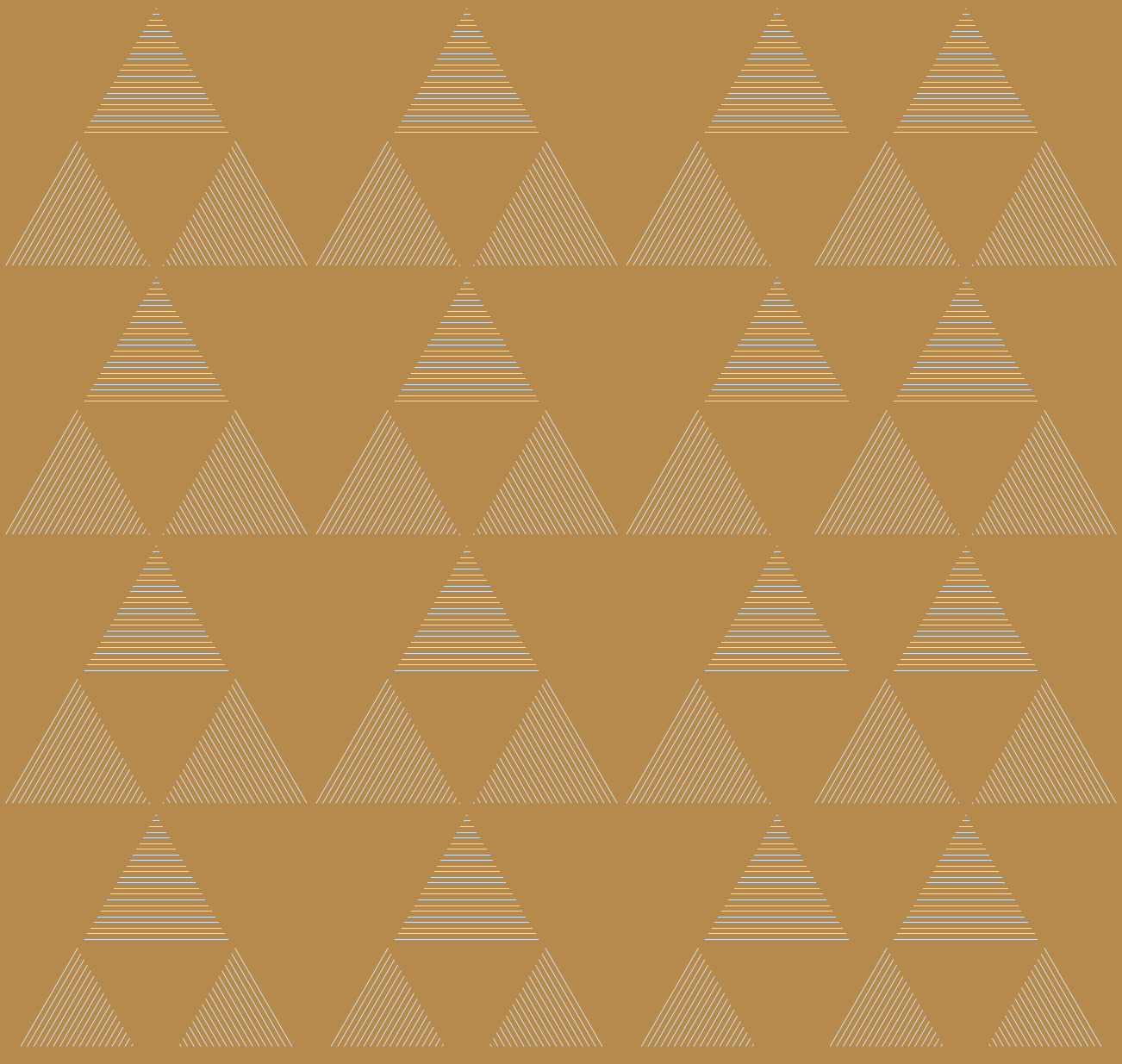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Stewart&Kirby, 1998, Interpretive Evaluation:Towards a place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4:1, pp.30-44.

Silberman, 2009, Process Not Product:The ICOMOS Ename Charter (2008) and the Practice of Heritage Stewardship, CRM:The Journal of Heritage Stewardship. 10. Pp.7-15.

Silberman, 2006, The ICOMOS-Ename Charter Initiative:Rethinking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George Wright Forum, Volume 23, number 1, pp. 28-33

US/ICOMOS, 2005, 2005 US/ICOMOS International Symposium :: Charleston Declaration

Wolfe, Linnie Marsh. (ed.) 1979. Reprint of John of the Mountains: The unpublished Journals of John Muir (1938), 2nd ed, 226.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III

## 전문가 회의

### 개념에 대한 논의

III

# 전문가 회의
## 개념에 대한 논의

### ◆◆ 전문가 회의에 대하여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전문가 회의(Definitions and Concept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Working Group)는 '유산 해석', '설명', '포용적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주로 유산 해석과 설명,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정의와 개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8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코모스 헌장(이하 '에나메 헌장')이 문화유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회의는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까지 논의에 포함시키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지역적 관점도 고려하는 등 세계유산협약과 최근 '자연-문화' 논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가 회의 이후에는,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유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더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배운 점들은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다.

3장은 전문가 회의 중 회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요약하고 설명한다. 전문가 회의는 해석 전문가(그룹1)와 유산 전문가(그룹2)로 나뉘어 유산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유산 해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탐구하였다.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의 회의가 운영되었다. 1차와 2차 회의는 각 그룹별로 진행되었고, 3차와 4차 회의는 두 그룹의 합동 회의로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고 두 그룹 간의 의견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회의에 대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1차와 2차 회의:** 문헌 연구 결과 공유, 개념의 인식론 검토, 정의 문장의 구조 논의
- **3차 회의:** 개념적 범위와 필요한 키워드 설정, 보존과 관리 과정에서의 유산 해석에 대한 논의
- **4차 회의:** 정의 문장의 초안 수정

1차와 2차 회의에서 합의된 부분은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의 두 가지 개념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반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함께' 유산의 의미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으며,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도록 개념이 발전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가 확립되었다. 바로 유산 해석과 설명이 참여, 경험과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구체적인 목표와 영향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유산 관리 과정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점에도 다들 동의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정의문장의 초안을 수정하는 4차 회의에서는, 유산과 사람 간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유산 해석과 설명의 역할이라는 결론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각도로 반영한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 전제로 필요하다.

## 1. 소개

2022년 4월, 센터는 '유산 해석' 및 '유산 설명'에 대한 현재의 정의와 개념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계획하였다. 이는 센터가 국제사회와 세계유산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센터의 향후 목표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 두 가지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론적 개념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회의의 최종 목표는 용어에 대한 장황한 정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용어를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 문장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다. 전문가 회의는 센터가 유산 분야 전문가들(특히, 유산 해석과 설명을 경험하고 수행했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유산 관리자, 보존 철학자(conservational philosophers)와 유산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지역적 논의와 관점을 논의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12명의 전문가 회의 참여자들에게 센터가 마련한 의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의제들은 센터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문헌 연구 결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센터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합의된 정의 문장을 확립하거나 적어도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문가 회의가 개념과 정의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각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센터는 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각 회의별로 두 시간씩 회의를 진행하였고, 각 참여자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다. 회의가 끝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작성한 문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참여자 전원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회의 일정**

| 날짜와 시간 | 의제 |
|---|---|
| 7월 1일, 8-9PM (KST) | 사전 회의, 사전 정보 공유 |
| 7월 8일, 8-10PM(KST) | 문헌 연구 결과 공유, 개념의 인식론 검토, 정의 문장의 구조 논의 |
| 7월 15일, 8-10PM(KST) | |
| 7월 22일, 8-10PM(KST) | 개념적 범위와 필요한 키워드 설정, 보존관리 과정에서 유산 해석에 대한 논의 |
| 9월 5일, 11AM-1PM(KST) | 설문조사 전 정의 문장의 초안 수정 |

전문가 회의 참여자 목록 (알파벳순)

| Nr | 이름 | 직책/소속 |
|---|---|---|
| 1 | Dominique Bouchard | Head of Learning and Interpretation, English Heritage |
| 2 | Steve Brown | Senior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Canberra |
| 3 | Neel Kamal Chapagain | Associate Professor & Director, Centre for Heritage Management, Ahmedabad University |
| 4 | Sarah Court | Independent Heritage Specialist |
| 5 | Manuel Gándara Vázquez | Professor, Escuela Nacional de Conservación, Restauración y Museografía |
| 6 | Sue Hodges | Managing Director, Sue Hodges Productions |
| 7 | Eugene Jo | Programme Manager, World Heritage Leadership, ICCROM/IUCN |
| 8 | Navin Piplani | Director, Creative Cluster, Sushant University |
| 9 | Trinidad Rico | Professor and Director of Heritage Conserv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 10 | Mario Santana Quintero | Professor, Carleton University |
| 11 | Neil Silberman | Lecturer in Heritage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oherit Associates |
| 12 | William Stewart Logan | Professor Emeritus, Deakin University |

## 2. 정의 페이퍼(Definition Paper)

전문가 회의의 모든 참여자들은 첫 회의 전 '정의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정의 페이퍼의 목적은 핵심 용어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참여자들이 회의 전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다음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은 해석과 설명과 다른가? 이 개념과 '2008년 문화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이코모스 헌장'의 정의 간 연관성 및 차이는 무엇인가?
- 해석은 설명과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 개념은 연관되어 있는가?
- 세계유산을 해석하고 설명의 주체는 누구 여야 하는가?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위 질문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에서 다루어 지면서 동시에 세계유산과 관련이 있는 핵심 쟁점들이다. 지난 3년 간 센터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국제적·지역적 유산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활동들과도 관련 있는 질문들이다. 이는 본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부터 제시된 질문들이며, 올해 말까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였고, 일부 참여자들은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였다. 모두가 첫 전문가 회의의 의제로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정의와 개념뿐만 아니라 원칙과 지침에 대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었다.

정의 페이퍼 제출을 요청한 목적은 개념과 정의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범위, 영역, 주제, 과정 및 방법론 등 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수준과 관점이 참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출된 문서들을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정의 페이퍼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더욱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2008년 에나메 헌장의 현행 정의를 인용하였다.

모든 정의 페이퍼를 검토한 이후, 첫 두 회의 동안 회의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센터 내부적인 우려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회의 운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룹1은 해석과 설명 분야 전문가들, 그룹2는 유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5-6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다른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팀의 문헌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점에 이르기를 기대하였다.

## 3. 회의 진행 과정

### 사전 회의 (2022년 7월 1일)

사전 회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센터와 해당 이론 연구 사업, 그리고 전문가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션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센터와 그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센터의 현행 및 이전 프로젝트, 단기적인 이론 연구 프로젝트들의 목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의 전반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적·지역적 의견을 대표하고, 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가 회의의 명확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 1차와 2차 회의 (2022년 7월 8일, 7월 15일)

회의가 진행되기 전, 두 그룹은 같은 의제를 전달받았다. 바로 문헌 연구[1]에 대한 내용과 정의 문장의 구조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산 해석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기원은 인지심리학과 해석학이라는

1 문헌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팀이 수행한 기초 연구이다.

두 가지 개념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지 심리학적 관점은 교육적 활동으로서 유산 해석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에나메 헌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해석학적 관점은 의미 형성을 위한 유산 해석의 기능을 강조한다. 이 문헌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 참여자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과 이 두 용어 간 관계를 논의하는 세션을 가졌다.[2]

해석 및 설명 전문가들과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해석'과 '설명'의 의미와 활동,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집중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동일하지 않으며 분명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두 개념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한 쪽이 실행되면 다른 한 쪽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차 회의의 전문가들은 인지심리학적 관점과 해석학적 관점을 완전히 별개로 볼 수는 없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유산 해석은 보다 역동적인 과정이며, 유산 해석을 경험하는 사람이 해석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이해와 학습 과정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미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어진다.

유산 전문가들과 진행한 2차 회의에서는, 에나메 헌장의 역사적 배경과 헌장에서 사용된 용어들의 초기 아이디어가 언급되어 흥미로웠다. 헌장이 처음 비준되었을 때, '해석'은 '의미 형성', '생각'과 관련된 것이었고, '설명'은 '발표'나 '소통'의 개념에 가까웠다. 또한 유산 전문가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가 시·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해석과 설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면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도 함께 존중해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차와 2차 회의 모두에서, 아래 도표와 같은 정의 문장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정의 문장은 '유산 해석/설명이란…'으로 시작하여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내용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 때 네 가지 축은 '무엇을(something)', '누구와(with whom)', '무엇을 위해(for what)', '어떤 방식으로(in a way that)'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는 참여자들이 제출한 정의 페이퍼를 기반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누구와'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위해'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목표를 의미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든 참여자는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문장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단어와 구문을 제안하였다.

2 해석과 설명의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한 이유는 지금까지 해석과 설명이 어떻게 형성되고 인용되어왔는지에 대한 논의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정의 문장의 키워드 제안

유산 해석/설명은…

**무엇(Something)**

(포용적) 과정 | 활동 | 명사 | 경험
상호작용 | 전략적 소통 | 지적 소통
지속적인 행위 | 중요한 행위
유산 관리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위
과거에 대한 상징적 담론
과거에 대한 공개적 담론(해석)
특정 해석에 대한 결과물(설명)
개인의 생각(해석)

**누구와(With whom)**

청중에게 | 방문객에게
사람과 함께 | 지역과 세계와 함께
(포용적) 공동체 | 전문가
이해관계자 | 권리보유자
개인으로서 나

**무엇을 위해(For what)**

유산 교육 | 유산과의 연결
공동체 강화 | 보존 문화의 형성
사람에 대한 이해 제고 | 참여
UNESCO 목표 달성 | 이해 증진
교육적 목적 | 사람과 유산을 연결
사람과 유산의 연결성 유지 및 향상

**어떤 방식으로(In the way that)[3]**

공개적 논의를 통해

두 회의가 끝난 후, 정의 문장이나 유산 해석과 설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가 회의 참여자들조차 두 가지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룹1과 그룹2의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정의 페이퍼와 앞선 두 회의를 검토한 결과, 유산의 해석과 설명이 세계유산에 적용될 때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모두 논의되었다. 무엇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은 달랐지만, 해석과

3 '어떤 방식으로' 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필요하다.

설명 활동과 목적면에서는 유사하였다. 또한 그룹1과 그룹2 참여자 간 이해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해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1은 해석 활동과 설명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2는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 3차 회의 (2022년 7월 22일)

3차 회의는 두 그룹 간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회의에서의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유산 해석과 전반적인 유산 분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지난 두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과 설명 과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오늘날의 유산 해석과 설명 과정에는 전문가나 유산 해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는 누구나 유산 해석과 설명 과정, 더 나아가 유산 자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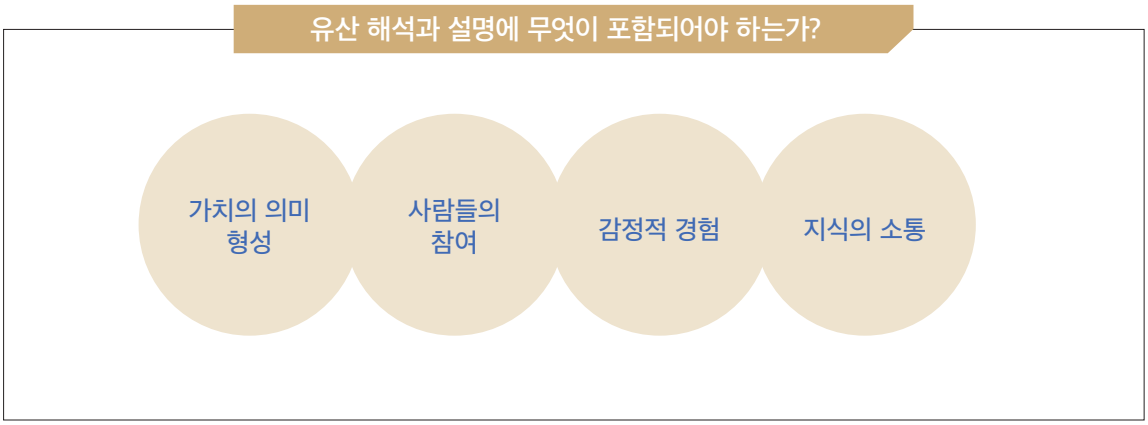



그림 1 유산 해석과 설명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1차, 2차 회의를 바탕으로, 3차 회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첫째, 참여자들에게 유산 해석과 설명의 범위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림1에 명시된 네 가지 개념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작성된 정의 문장 구조 도표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유산 해석과 설명에는 참여, 경험과 의사소통이 포함되고, 이것이 의미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 다른 주요 키워드에는 가치, 사람, 감정, 지식, 번역/언어, 무형적 측면과 삶이 있었다. 이 단어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에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단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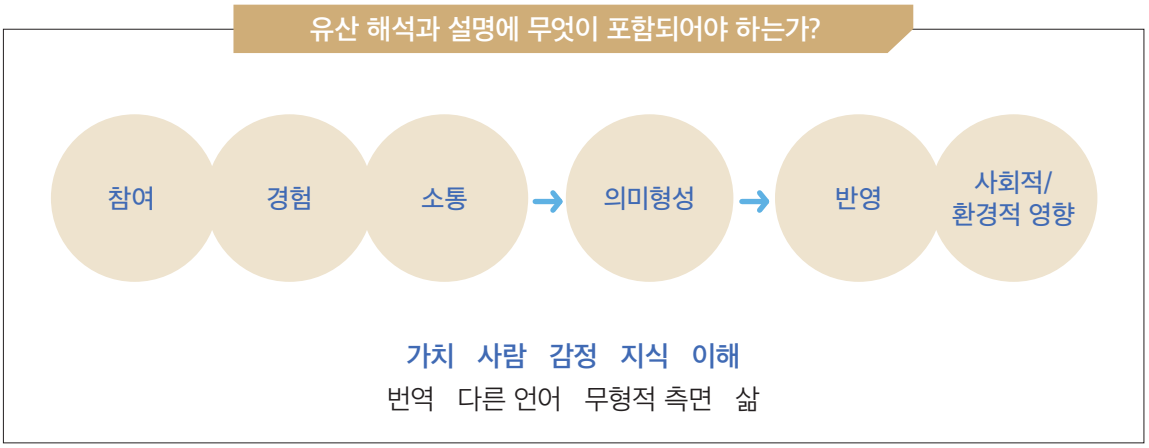



그림 2 유산 해석과 설명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수정)

3차 회의에서 두번째로 던진 질문은, '유산 해석과 설명은 유산 보존관리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였다.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아래 도표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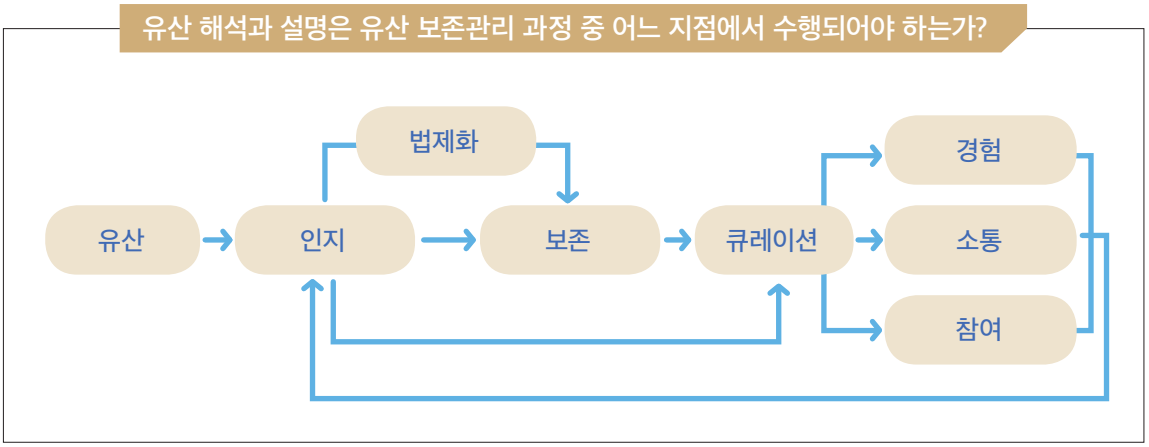



그림 3 유산 해석과 설명은 유산 보존관리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이 도표는 세계유산을 포함하여 유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 과정을 나타낸다. 지난 회의에서 정의 문장 구조를 논의할 때, 해석과 설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현실에서 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수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도표는 유산의 전반적 관리 및 보존 과정과,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전반적인 맥락까지 유산 해석에 연관 지어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각 단계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위 도표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였다. 출발 지점에 있는 '유산'은 도표의 어느 지점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큐레이션(curation)'은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더 잘 설명하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표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모든 단계에서 각기 다른 형식과 방법으로 유산 해석 및 설명이 포함되거나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들을 원형으로 그린 도표가 제안되었다.

그림 4 **유산 해석과 설명은 유산 보존관리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수정)**

센터는 3차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유산 해석과 설명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사고 방식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개념과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3차 회의는 정의 문장 초안을 작성하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 센터의 내부 논의(2022년 8월 12일)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 이후, 센터는 전문가 회의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센터의 향후 목표 및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 내부 논의 회의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문가 회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몇 가지 피드백을 주었다.

먼저, '포용적 유산 해석'에서 '포용성'의 개념이 반대 의견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방향성이 '포용성'의 의미에 충분히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재평가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둘째, 바람직하고 적절한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 접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할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윤리적 접근법과 예시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산의 해석과 설명 과정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다른 가치들 모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는 유산이 지역적, 국가적, 공동체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다중적 의미들과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유산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가치 체계 뿐만 아니라 유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까지 반영해야 한다.

### 4차 회의 (9월 5일)

세 차례의 회의 이후, 센터는 더 많은 유산 공동체와 전문가 대상으로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고자 국제적 설문조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준비 단계에서 정의 문장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4차 회의는 정의 문장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회의 전 초안**: 유산 해석은 유산 설명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통, 참여, 그리고 경험을 수반하는 유산의 의미 형성 과정이며, 유산과 상호작용하고 유산과 사람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산 해석은 윤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유산의 가치에 대한 전체 맥락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차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문장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정의 문장이 전문가 회의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지 구절 단위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사람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기 위해 '참여적(participatory)'이라는 단어를 문장 어디에 넣을지가 참여자 간 주요 논쟁점 중 하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OUV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산 가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가치(value)'에 대한 구절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참여자들은 OUV가 유산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OUV는 항상 '공동체'가 인정하는 가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OUV 및 공동체적 가치'라는 문구에 합의하였다.

참여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센터의 미션과 궁극적 목표를 윤리적 측면과 연결 지어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의 문장을 통해 유산 분야의 글로벌 문제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유네스코와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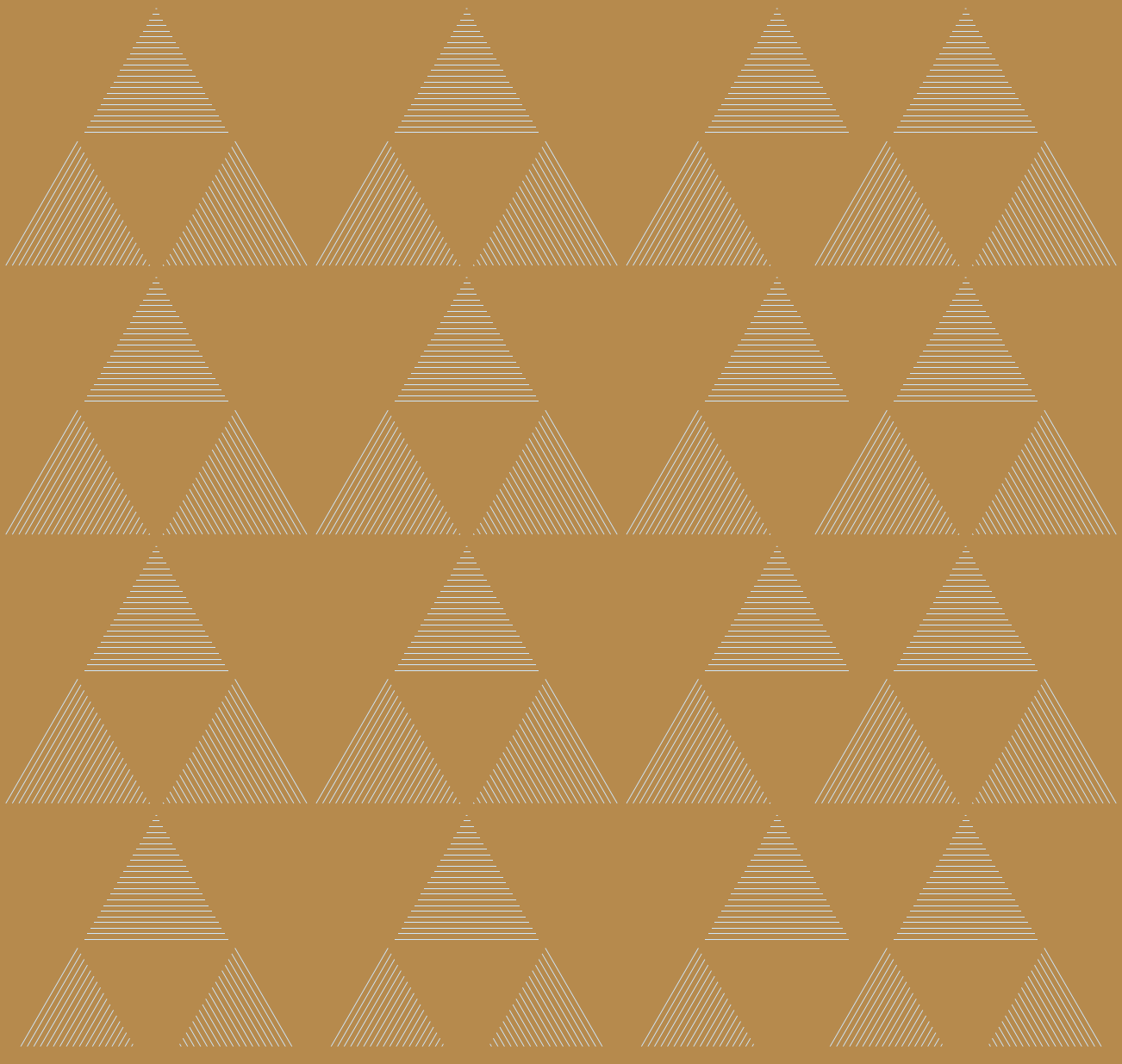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수정본**: 유산 해석은 소통, 참여, 그리고 경험을 통한 (참여적) 의미 형성 과정이다. 이것은 사람과 유산 간의 연결성을 형성/촉진하고, 이해를 증진시킨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참여적) 의사 결정 과정은 OUV와 공동체적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접근법에 기반한 유산 해석을 전제로 한다. 센터의 미션은 평화 구축, 인권, 문화 간 이해, 성평등,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유네스코의 책무를 반영하여 유산 해석을 촉진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난 이후, 참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어 선택에 대한 추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센터는 설문의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유산 해석의 의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문지에서 센터 미션을 제시하는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 문장 초안이 완성되었다.

**최종 수정된 초안**: 유산 해석은 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이다. 이것은 사람과 유산 간 연결성을 촉진하고 이해를 증진시킨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 결론

다섯 차례의 센터 내부 및 외부 회의를 진행한 이후 완성된 정의 문장 초안은 마지막 회의 이후 진행된 국제 설문조사에 활용되기로 결정되었다. 전문가 회의 참여자들이 모두 유산 전문가들이지만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유산 공동체와 기타 유산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다른 유산 공동체들도 현재 작성된 문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문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부분이 또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유산 해석'에 주로 집중하고, '유산 설명'은 소홀히 한 점도 인지하였다. 즉, 전문가 회의 결과의 장단점을 반영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IV

## 설문조사 보고서

### 더 넓은 유산 분야의 의견

IV

# 설문조사 보고서
## 더 넓은 유산 분야의 의견

### ◆ 설문조사 개요

전문가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유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유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 해석 및 설명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된 정의 초안의 내용과 구조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3일간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센터 네트워크에 포함된 연구자 및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유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오픈링크가 SNS에 공개되어 있어 유산 해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문에 응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는 크게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시한 '유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개념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유산 해석과 설명을 본인의 단어로 정의하라'고 질문하였다. 세 번째로 전문가 회의의 정의 문장 초안을 보여주며 각 '키워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에게 '원칙을 위한 필수적인 키워드'를 질문하였다. 설문조사의 모든 데이터는 향후 연구 프로젝트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 본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활용된 문장들은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산출된 문장들이므로, 문법에 오류가 있거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장의 설문결과에 한하여 분석 결과로 도출된 단어들은 작은 따옴표(' ')로 표기하였습니다.
*** 본 장의 설문결과에 한하여 영문단어 'Site'를 '유적'이라고 번역하였고, 이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제규범 번역본을 따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를 국문 그대로 '유적'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산(heritage) 또는 유산 장소(heritage place)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배경

유산 해석의 정의와 개념은 프리먼 틸든(Freeman Tilden)이 그 중요성과 방법론의 기초적 틀을 제시한 이후 오랜 기간 유산 분야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혀왔으며, 관련 개념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더불어,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방식도 유사하게 진화하였고, 접근방식의 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현대사회에서 유산의 역할 변화 등이 수반되었다. 오늘날 유산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 유산 해석 및 설명은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이론연구: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석과 설명 개념의 발전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황을 논의하며, 유산과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유산 담론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된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문헌 검토, 전문가 회의, 국제 설문조사, 컨퍼런스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앞선 두 단계에서 개념들이 논의되고 발전되며 집단적 합의를 도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된 응답들을 바탕으로 하여,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지 조사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설문조사의 주된 목표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을 규명하고, 향후 이론 연구를 위하여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응답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강화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정의와 개념 정립
- 유산 해석 및 설명을 다룬 센터의 연구에 대한 의견들 사이 연관성 파악 및 합의점 도출 시도
- 유산 해석 및 설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정보 제공

## 2. 설문조사 방법

이전까지 진행된 연구 단계(문헌연구, 전문가 회의)들을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정성적 및 정량적 조사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형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에는 총 일곱 개의 기술적 질문과 한 개의 리커트 다점 척도 질문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은 센터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의 및 개념이 유산 분야 종사자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용어의 활용, 빈도 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질문들이 설문 조사에 활용되었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어 제한 등의 규칙이 적용되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3일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상 응답자는 국내·외 유산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포함했다. 본 설문조사는 영어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였으며, 조사 링크는 이메일 초대로 배포되거나 센터의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었다. 이메일 초대링크는 사전 동의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집한 유산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게 전송되었다.

총 108명의 응답자들이 유효한 응답을 제공했으며, 응답에 대한 분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성별, 전문적인 배경 등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나뉜 대상자들 간에 균형 있는 응답이 제출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술 응답의 경우, 1) 단어 클라우드, 2) 빈도분포표, 3) 시맨틱 네트워크, 4) 텍스트 요약 알고리즘, 5) 텍스트 유사성 분석 및 평가가 사용되었다. 다척도 응답의 경우 1) 빈도분포표와 2) 상관분석이 사용되었다.

유산 해석 및 설명과 관련하여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을 살펴보면 센터가 제시한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 3. 결과 분석

기술 문항은 유산 해석 및 설명의 1) 필요성, 2) 정의, 3) 원칙을 묻는 질문들을 다루었다. 앞서 언급했듯 본 설문조사는 문헌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추출된 종합적 결론을 유산 분야 종사자들이 어떤 점에서 동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응답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들의 빈도수, 연결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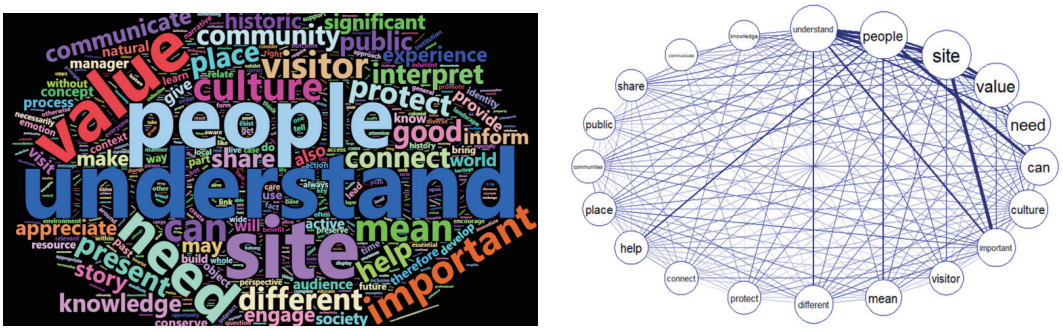



그림 1 유산 해석 및 설명의 필요성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및 시맨틱 네트워크 표

### 1) 유산 해석 및 설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유산 해석 및 설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경우, '이해하다(understand)'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인간(people)'과 '유적(site)'[1] 이 크지 않은 격차로 그 뒤를 따랐다.[2]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체 혹은 대상을 뜻하는 주제어에 대해 '인간(people)' 뿐만 아니라 '가치(value)'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렬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설명하고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사성 분석의 자동 요약 결과는 다음과 같다.[3]

'많은 사람들은 유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추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산 해석 및 설명은 사람들이나 방문객이 유산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도출되었다.

전반적인 의견은 **'유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유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향상된 지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산을 접한 이들이 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산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1 p.40 각주(***) 참조

2 주제어가 유산 해석 및 설명이었으므로, 유산, 해석, 설명 등의 중점 단어는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자동 요약된 문장들은 머신 러닝 분석을 통해 수집되고 생성되었으므로 부정확한 문법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

### 2) 유산 해석 및 설명을 본인의 단어로 정의하라

그림 2 유산 해석(좌측) 및 유산 설명(우측)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유산 설명 및 유산 해석 정의와 관련된 용어의 빈도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산 해석의 경우 '의미(meaning)'와 '유적(site)'[4] 이 가장 자주 활용된 용어였고, '이해하다(understand)'와 '가치(value)'가 그 뒤를 따랐다. 이는 보편적으로 유산 해석이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유산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행위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 설명의 경우, '의미(meaning)'을 필두로 '알리다(inform)', '사용(use)', '방법(way)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으며, '대중(audience)'과 '대중(public)'과 같이 소통 대상을 나타나는 단어들이 그 뒤를 이었다. 주제와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응답자들이 유산 설명의 역할을 '대중 또는 청중에게 유산을 알리는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유산 해석은 활동적 과정으로, 유산 설명은 수단 또는 방법론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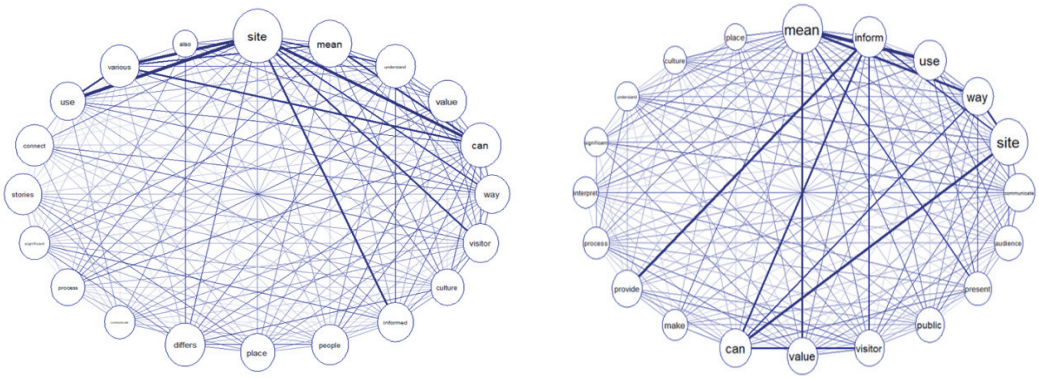



그림 3 유산 해석(좌측) 및 유산 설명(우측)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4 p.40 각주(***) 참조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유적(site)'[5] 은 해석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다양성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해석하다(interpret)'와 연관이 있었다. 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제출된 응답들이 유산 해석을 다양한 유산의 가치를 해석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는 점이다. 설명의 경우 '방법(means)'을 중심으로 '알리다(inform)', '사용(use)', '제공하다(provide)', '방법(way)', '유적(site)'[6], '가치(value)' 그리고 '방문객(visitor)' 등이 큰 관계성을 보였다. 일부 응답들은 유산 설명을 '유산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알리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산 해석의 정의에 대한 모든 응답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유산 해석은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행위이다.'

유산 설명의 경우 도출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석이란 유산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 두 정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도출되었다.

'나는 당신이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유산 해석이 사람, 유산, 문화 간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반면, 유산 설명은 **'유산의 가치와 정보를 주체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분석되었다. 대표 단어로 다시 추출하면 유산 해석은 '설명하다(explain)', 유산 설명은 '보여주다(show)'라고 요약이 가능했다.

그림 4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원칙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및 시맨틱 네트워크

5 p.40 각주(***) 참조

6 p.40 각주(***) 참조

두 문단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은 이전 연구 및 워킹 그룹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 제시되었다. 이 문항은 새롭게 제안된 정의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개정을 위한 의견들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응답자들은 정의 문장을 구성하는 각 키워드에 대하여 본인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선택하였다. 척도는 '매우 비동의', '비동의', '중립', '동의', '매우 동의'로 구성되었다.

### 3) 정의 문장에 대한 동의 여부 평가

> 유산 해석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경험**(experience)을 통한 ⓐ**의미형성 과정**(meaning-making process)으로, ⓔ**이해를 증진하며**(increases understanding) ⓖ**사람과 유산**(people and heritage places) 간 ⓕ**연결성을 촉진한다**(promotes connections).
>
> 무엇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적이고**(based on an ethical) ⓘ**참여적 접근방법**(participatory approach) 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공동체가 지닌 가치**(community-held values)를 포함한 ⓙ**모든 유산 관련 가치**(full range of heritage values)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그림 5 리커트 5점 척도 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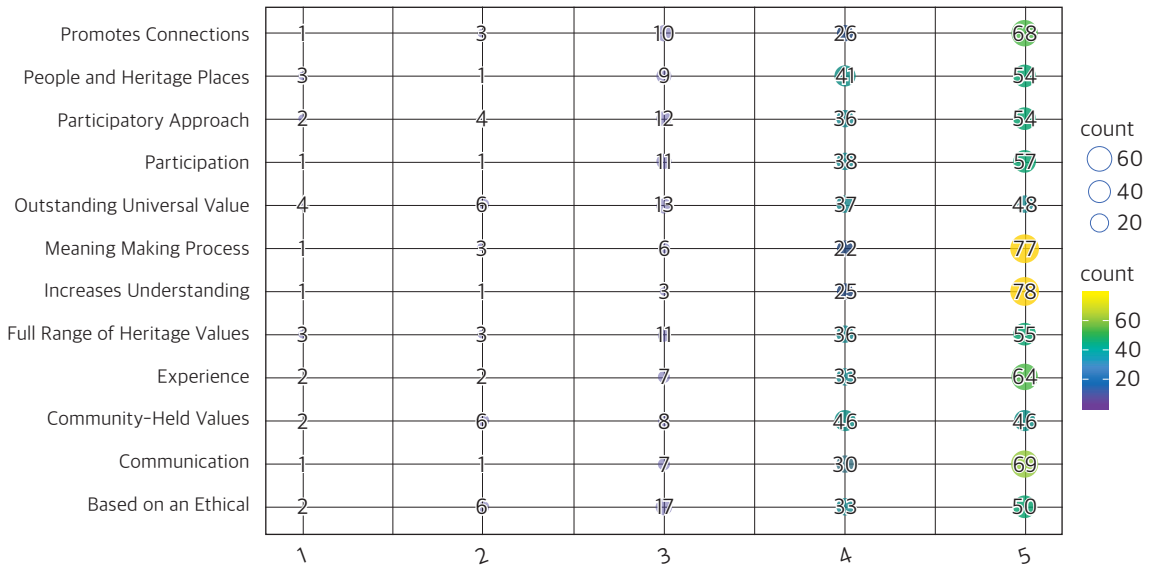



그림 6 각 키워드의 누적 빈도 Balloon Plot

| Keyword | 평균 점수 |
|---|---|
| Total | 4.36 |
| ⓐ Meaning-Making-Process | 4.58 |
| ⓑ Communication | 4.53 |
| ⓒ Participation | 4.38 |
| ⓓ Experience | 4.44 |
| ⓔ Increases-Understanding | 4.65 |
| ⓕ Promotes-Connections | 4.45 |
| ⓖ People-And-Heritage-Places | 4.32 |
| ⓗ Based-On-An-Ethical | 4.14 |
| ⓘ Participatory-Approach | 4.26 |
| ⓙ Full-Range-Of-Heritage-Values | 4.27 |
| ⓚ Outstanding-Universal-Value | 4.10 |
| ⓛ Community-Held-Values | 4.19 |

표 1 각 키워드별 평균 점수(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동의)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들이 동의 척도에 있었으며, 비동의 척도들을 선택한 응답은 소수였다. '매우 동의'는 모든 키워드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척도였으며, '의미형성 과정'은 가장 많은 '매우 동의'를, '공동체가 지닌 가치'는 가장 적은 '매우 동의'를 받은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내보면, '이해의 증진'이 가장 높은 점수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키워드 | 빈도 (비율) | | | | | 합격 (비율) |
|---|---|---|---|---|---|---|
| | 매우 미동의 | 비동의 | 보통이다 | 동의 | 매우 동의 | |
| ⓐ Meaning-Making-Process | 1 (0.9) | 3 (2.8) | 5 (4.6) | 22 (20.4) | 77 (71.3) | |
| ⓑ Communication | 1 (0.9) | 1 (0.9) | 7 (6.5) | 30 (27.8) | 69 (63.9) | |
| ⓒ Participation | 1 (0.9) | 1 (0.9) | 11 (10.2) | 38 (35.2) | 57 (52.8) | |
| ⓓ Experience | 2 (1.9) | 2 (1.9) | 7 (6.5) | 33 (30.6) | 64 (29.3) | |
| ⓔ Increases understanding | 1 (0.9) | 1 (0.9) | 3 (2.8) | 25 (23.1) | **78 (72.2)** | |
| ⓕ Promotes connections | 1 (0.9) | 3 (2.8) | 10 (9.3) | 26 (24.1) | 68 (63.0) | |
| ⓖ People and heritage places | 3 (2.8) | 1 (0.9) | 9 (8.3) | 41 (38.0) | 54 (50.0) | 108 (100.0) |
| ⓗ Based on an ethical | 2 (1.9) | 6 (5.6) | 17 (15.7) | 33 (30.6) | 50 (46.3) | |
| ⓘ Participatory approach | 2 (1.9) | 4 (3.7) | 12 (11.1) | 36 (33.3) | 54 (50.0) | |
| ⓙ full range of heritage values | 3 (2.8) | 3 (2.8) | 11 (10.2) | 36 (33.3) | 55 (50.9) | |
| ⓚ OUV | 4 (3.7) | 6 (5.6) | 13 (12.0) | 37 (34.3) | 48 (44.4) | |
| ⓛ Community-held values | 2 (1.9) | 6 (5.6) | 8 (7.4) | 46 (42.6) | **46 (42.6)** | |

**표 2** **각 키워드별 동의 빈도 분포 및 비율**

이들 키워드는 전체적으로 '동의'라는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지만, 유산 해석의 전제를 설명한 두번째 문단(ⓗ~ ⓚ)의 모든 키워드들은 응답자 10% 이상이 '중립'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산 해석이 세계유산에 적용될 때 작용하는 복합적 측면들을 유산 분야 내에서도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산 해석을 위한 전제를 정의하고 이해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 4) 유산 해석과 설명의 중요 원칙

마지막으로 유산 해석 및 설명이 요하는 주요 원칙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방법(mean)', '이해하다(understand)'와 '가치(value)'가 도출되었으며, 이들 용어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용어 간 연관성을 살펴보면 '방법(mean)'과 '가치(value)'가 중심 단어이며, 이들을 주축으로 '이해하다(understand)', '연결하다(connect)', 그리고 '접근하다(approach)'가 강한 관계를 보여준다. 더불어 '연결하다(connect)'가 '장소(place)', '인간(people)'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칙에 대한 응답들은 텍스트 요약을 통해 다음의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사회와 공동체의 모든 단면을 포함하는 객관적 내러티브의 형성'**

심층 분석에 따르면 소통 및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의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원칙과 관련된 주요 세 키워드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에서 소통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상위의 두 단어가 모두 소통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 질문의 응답이 시사하는 것은 유산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 의미형성과 소통의 과정에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들을 종합해보면 유산 해석은 유산과 그 가치들을 탐구하는 과정이고, 유산 설명은 유산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응답을 기반으로 산출된 해석과 설명의 중심 원칙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내러티브'로 '유산의 가치와 사람들을 연결 지어 유산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산 해석 및 설명의 필요성, 정의, 원칙에 대한 응답들을 살펴보면 유산 해석은 일련의 과정이며, 유산 설명은 유산과 유산의 가치를 접한 이들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센터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유산 해석 및 설명이 어떻게 창출되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과제들은 가치의 다양성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응답 결과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유산 가치가 다양한 종류의 유산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계 및 기대점

본 설문조사는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해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내러티브'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유산은 다양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유산 해석과 설명을 바탕으로 유산을 이해함으로써 유산에 대한 논의와 소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세계유산들이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계 유산 관련

기관들과 당사국들이 해석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센터의 활동들이 이를 지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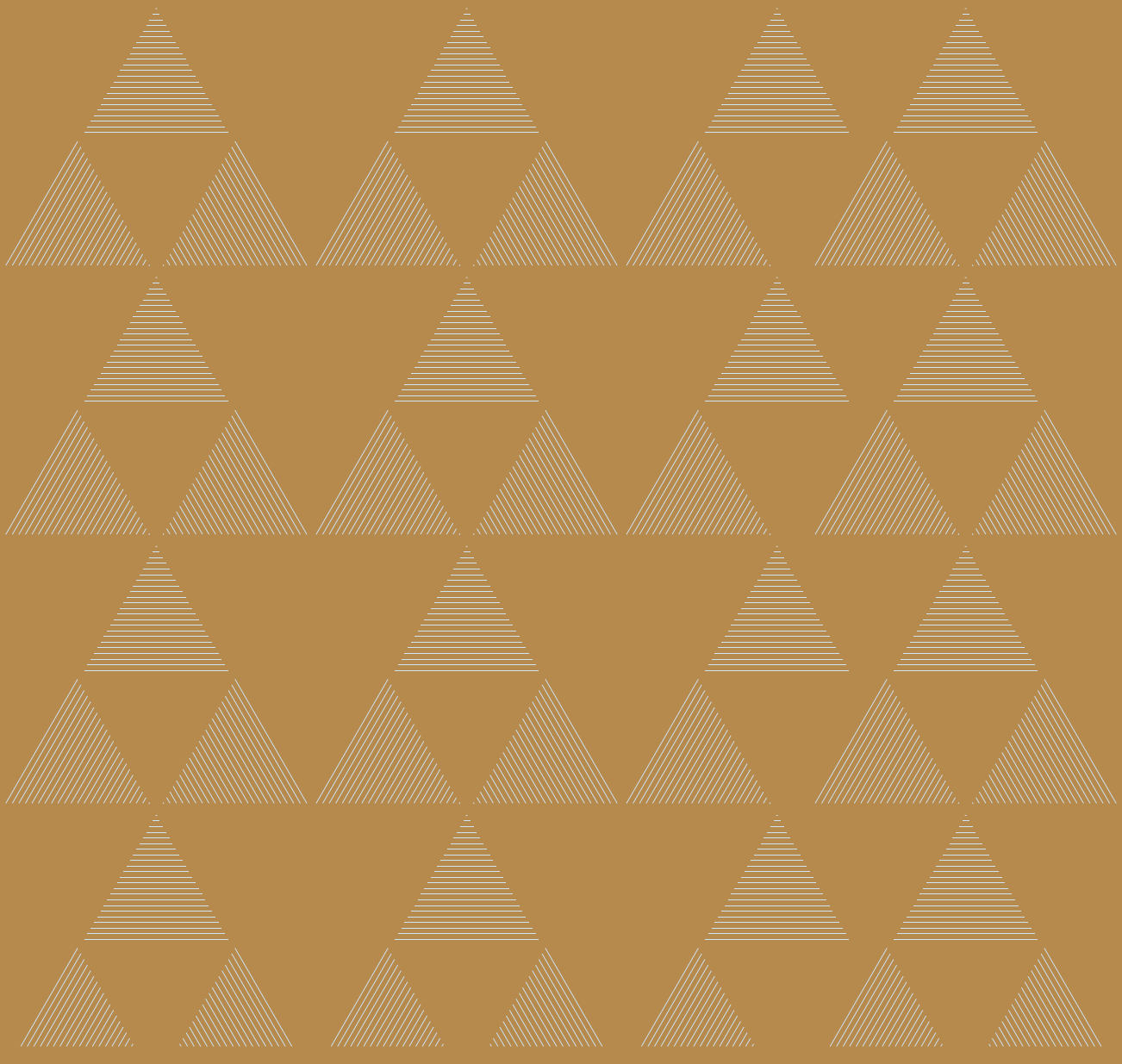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충분한 양의 응답을 수집하기 어려웠고, 심층 인터뷰가 부족하였으며, 맞춤형 분석 방법론이 부재하여 결과 분석의 활용도는 낮았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센터는 본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개발 및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향후 심층 인터뷰와 맞춤형 분석을 통해 본 설문조사를 후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연구는 해당 주제에 있어 첫 번째 근간이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 및 설문조사는 필수이다.

유산에 대한 관점과 해석 및 설명 접근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공동의 합의를 이르게 되더라도, 생각과 관점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다. 하지만 합의를 이룬 시점부터 이러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개념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과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수정, 활용 및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 센터가 연구의 중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 연구는 지리적 비율에 기반한 맞춤화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설문조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후속 연구의 핵심은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생각을 추적하는 것이다. 센터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주축을 담당하는 개념 및 정의, 정책, 주제별 연구, 지역 연구, 정보 관리, 교육 및 역량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유산 해석 및 설명의 뚜렷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이행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시도와 의견 추적을 통한 연구 데이터 아카이빙은 데이터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데이터 수집, 처리 및 관리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연구 결과가 일반적인 규범으로 자리잡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유산 해석 및 설명의 다양한 연구 분야의 결과 간 데이터 비교는 개념과 정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센터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포용적이고 인정받는 기준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의견과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는 센터의 다양한 사례 연구들과 연구의 변화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 데이터를 분류하고 필요한 영역에 데이터를 적용하게 되면 유산 해석 및 설명 정책에 관한 필요한 자문과 합리적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소통, 의미 형성, 이해 향상, 다양성과 객관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유산을 바라보는 국제적(cosmopolitan) 관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결론

유산 해석과 설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과 공동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유산을 이해하고 전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직 기초 단계에 있지만, 본 설문조사는 센터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주제와 유관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역시 제공한다. 추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아이디어 탱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심층 연구와 비교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산의 유형, 배경, 특성, 역사적 상황에 따라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해 고려할 요소들이 수없이 많다. 본 연구는 유산이 더 포용적으로 전달되도록 기여하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유산을 포함한 유산 분야의 여러 개념이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 V

## 컨퍼런스

현황 및 향후 방향 공유

V

# 컨퍼런스
## 현황 및 향후 방향 공유

### 컨퍼런스 개요

WHIPIC이 주관한 '2022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 2일차에 진행된 본 컨퍼런스에서는 이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는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명의 발표자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이후 4명의 토론자들은 기조 연설을 통해, 원칙 및 지침 수립을 포함한 향후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대해 역설하였다.

본 컨퍼런스는 2022년 11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오프라인과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형식이었다.

* 본 컨퍼런스의 전체 영상은 WHIPI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hipic

## 1. 소개

- **제목**: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일자**: 2022년 11월 16일
- **장소**: 대한민국 서울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규모**: 약 100명(오프라인), 조회수 2,000회(YouTube)

### 발표와 기조연설 목록

| 발표세션 -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론연구 결과 공유 | |
|---|---|
| 1.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 및 용어 재정립 | 김영재<br>(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
| 2. 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에 대한 전문가 회의 내용 공유 | 트리니다드 리코<br>(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유산보존학과장) |
| 3. 세계유산의 설명: 사람과 유산 간의 소통을 통한 가치의 공유 | 김남웅<br>(UNESCO WHIPIC 정보관리실 전문관) |
| 4. 설문조사: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목적과 관계 | 김안지<br>(UNESCO WHIPIC 연구개발실 전문관) |

| 토론세션 - 해석 설명 원칙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 | |
|---|---|
| 1. 개념 및 정의를 발전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 레티샤 레이타오<br>(국제기구 독립 컨설턴트) |
| 2. 또 다른 관점: 해석과 유산 해석의 차이 | 마누엘 간다라<br>(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
| 3. 다양한 이야기 반영을 위한 유산 해석과 설명 |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br>(ICOMOS 사무총장) |
| 4. 유산 해석 원칙과 지침 수립에 대한 도전과제 | 강소정<br>(UNESCO WHIPIC 연구개발실 전문관) |

## 2. 발표 세션 -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론연구 결과 공유

### 1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 및 용어 재정립

김영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 소개

- 본 연구는 유산 해석의 학문적·해석학적 개념을 탐구한다. 이전에는 대중과의 의사소통 창구로 여겨져 온 유산 해석의 개념이 점차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명시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본 연구는 유산을 이해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미국에서 유래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유럽의 해석학적 관점이다.
- 두 가지의 상충되는 해석의 관례를 다룬 본 연구는 헤게모니(hegemony)와 포용적 유산 해석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율적인 토론과 소외된 자들을 지지하는 논쟁적(agonistic) 유산 해석을 설명하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통적 의미를 도출한다.

#### 유산 해석 및 설명 개념의 변화

**1) 인지 심리학적 관점**

- 가장 자주 언급되는 유산 해석의 개념과 정의는 유산 분야에서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원칙을 확립한 틸든(Tilden, 1957)이 제시하였다. 초기 문헌 연구를 통해 유산 해석에 대한 틸든의 교육적, 인지 심리학적 관점은 17세기에서 20세기의 듀이(Dewey), 루소(Rousseau), 로크(Locke)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지심리학적 관점의 해석은 교육적, 현대적 관점에서 유산에 대한 해석의 개념을 포괄한다.

**2) 해석학적 관점**

- 이에 반해 해석학적 접근법은 유럽 철학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방법론적, 철학적 관점을 아우른다.
- 해석학적 관점의 해석은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3) 에나메 헌장의 등장과 개념적 변화

- 2000년에 출범한 '대중 고고학 및 유산 설명을 위한 에나메 센터(ENAME Centre for Public Archaeology and Heritage Presentation)'가 이제는 이코모스 문화유산 해석설명 학술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2008년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에나메 헌장)을 비준하였다.

- 에나메 헌장은 문화유산 해석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포용적인 유산 해석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공유된 가치를 확립한다.

#### 4) 현대적 '유산 해석' 이해의 발전

- 유산 해석을 교육적 활동으로만 이해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유산 해석을 전체 유산 과정에 대한 방법론으로 간주한다.
- 과거의 유산 해석 분야가 유산의 '발견', 즉 '언제 어떻게 유산이 형성되고 발견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과정으로서의 유산'은 유산 형성 과정에 누가 왜 참여하였는지에 집중한다.
- 이제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는 단지 과학적 증거를 넘어 유산과 그에 할당된 가치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도 고려한다.

### 논쟁적(Agonistic) 유산 해석과 포용적(Inclusive) 유산 해석

- 논쟁적 유산 해석은 상충되는 해석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석 분야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규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공적인 무대에서 개인 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또한, 유산 해석에서는 합의를 통한 하나의 결론은 도출될 수 없으며 현재 주류 집단의 해석이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반대로, 포용적 유산 해석에서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유산 해석이 있을 때, 포용적 유산 해석은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통의 의미를 도출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관점에 서는 합의 과정에서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되는 유산 해석이 배제될 수도 있다.

### 결론

-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 기관들이 유산 해석 및 설명과 관련된 용어 정립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히, 해석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석에 대한 관점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해석의 목적과 용례도 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석과 해석학 등 해석 관련 용어와 설명, 진술(explanation), 서술(description) 등 설명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이 컨퍼런스에서는 용어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용어 중 일부를 추출하고 다양한 정의를 도표화하였다. 용어 정립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예정이다.

## 2 유산 해석과 설명 개념연구에 대한 전문가 회의

트리니다드 리코(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유산보존학과장)

### 소개

- 초기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 2008년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에나메 헌장은 유산 보존을 위한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보급(dissemination)', '대중화(popularisation)', '설명'과 '해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한다. 이 용어들은 협의나 협상이라는 개념과는 의도와 절차 자체가 매우 다르다.
- 모든 유산 관리자와 이해관계자가 유산 해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가 참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단절될 수 있고, 유산에 대한 다양한 해석, 때로는 충돌이 되는 해석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 논의 1

- 첫 번째 회의는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정의 수정 및 확대에 대해 위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윤리적, 실제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 새로 정립한 정의는 혁신적이면서도, 당사국과 유산 전문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코모스 및 유네스코가 이전에 정한 정의와 연결된다.
- 유산 관리자, 학계, 그리고 대중의 견해와 언어를 정의 내 모두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 정의를 내리고, 접근 가능한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
- 예상 최종 사용자와 실제 활용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 시작하여 모든 정의와 용례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논의 2

-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위 '비전문가' 간 '전문지식'이 개념화된 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유산 가치가 객관적인지 또는 주관적, 경험적, 개념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유산 해석은 유산 가치 관리 과정에서 발견,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준다.
- 유산 해석은 하나의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과 목표가 공존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활동 무대이다.

### 결론

-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세월을 견뎌낼 '해석'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 언어의 애매모호함과 엄격함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유동적인 '유산'의 의미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 3 세계유산의 설명: 사람과 유산 간의 소통을 통한 가치의 공유

김남웅(UNESCO WHIPIC 정보관리실 전문관)

### 설명과 해석의 관계와 역할

- 설명은 단순한 정보전달과 교육을 넘어, 인간과 유산을 연결하는 소통 방식의 한 형태이다.
- 두 용어를 구분 짓는 목적은 해석과 설명을 별개의 행위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보존되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
- 설명은 해석이라는 통합적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유산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이다.

### 세계유산 설명의 의미

- 2008년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에나메 헌장과 세계유산협약문에 정의된 '설명'에 대한 의미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 설명은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상호 연결된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봐야 한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의 시사점

- 세계유산 설명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계된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들은 유산에서 실행되는 설명이 바뀌어, 정책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장 사이에서 발생한 차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유산 설명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와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산 설명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세계유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효과적인 유산 설명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노력은 세계유산의 현장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중의 권리 및 잠재력 증대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과 현장 모두에서 효과적인 유산 설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견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 4 설문조사: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목적과 관계

김안지(UNESCO WHIPIC 연구개발실 전문관)

### 배경과 목적

- 본 연구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과 정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센터의 유산 해석 및 설명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고 일반적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 유산 해석 및 설명에 관련된 활동들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정보의 역할을 한다.

### 결과 및 분석

- 기술 문항은 유산 해석 및 설명의 1) 필요성, 2) 정의, 3) 원칙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 졌다.
- 기술 응답의 경우, 1) 단어 클라우드, 2) 빈도분포표, 3) 시맨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4) 텍스트 요약 알고리즘과, 5) 텍스트 유사성 분석 및 평가가 사용되었다. 다척도 응답의 경우, 1) 빈도분포표와 2) 상관 분석이 사용되었다.
- 조사된 응답들을 살펴보면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산 해석은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행위이다.'*
  *'나는 해석이란 유산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 결과들을 대표 단어로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유산 해석을 '설명(explain)'하는 행위로, 유산 설명은 '보여주는(show)'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 유산 해석의 원칙에 대한 응답에 텍스트 요약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중요한 원칙을 생성했다.
  *'사회와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여 반영한 객관적인 서술 방식의 생성'*

- WHIPIC의 연구와 전문가 회의 논의를 통해 '유산 해석'을 정의한 두 문단이 도출되었으며, 여기에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들이 '동의(agree)' 척도로 몰렸으며, 비동의를 선택한 응답은 소수였다.

**결론**

- 유산 해석은 유기적인 과정이고, 유산 설명은 유산과 유산의 가치를 접한 사람들의 해석 수단이라는 데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본 설문조사는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해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3. 토론 세션- 미래 전략 수립

### 1 개념 및 정의를 발전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레티샤 레이타오(국제기구 독립 컨설턴트)

**세계유산 시스템에 새롭게 작성된 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유산 해석과 설명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하여 세계유산이 지닌 모든 가치를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 한 유산의 모든 가치가 항상 잘 알려지고 잘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첫 단계'로 유산의 가치 판단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유산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와 개념을 개선할 수 있을까?**

- 지역 공동체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그들의 유산에 대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다양한 유형의 지식 체계를 의미 형성 과정에서 활용하고 포함하여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유산을 벗어나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자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들이 세계유산과 세계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이해하고, 유산과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또 다른 관점: 해석과 유산 해석의 차이

마누엘 간다라(멕시코 국립문화유산보존대학교 교수)

### ‘유산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이해

#### 1) ‘추론 형태’로서의 유산 해석

- 유산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 해석학적 고고학자들은 본인들이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인위적 유사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주장한다(Hodder 2004).

#### 2) 전문가에 의한 ‘가치 평가’로서의 유산 해석

- 유산의 가치들은 평가된다. 세계유산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산 전문가가 수행한다.

#### 3) 유산 해설가의 ‘가치에 대한 소통전략’으로서의 유산 해석

- 이는 일부 전문가와 WHIPIC이 사용하는 ‘유산 설명’의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 미국 국립해석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NAI)와 같이 유산 해석을 실제로 이행하는 기관에서는 주로 그들의 활동들을 유산 설명이 아닌 유산 해석이라고 칭한다.

### 해석 vs 유산 해석

-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해석’을 해석학적 해석과 연결시켜 정의하는 것은 개념 간 모호함을 야기할 수 있다.
- 센터가 추구해야 할 해석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유산’에 초점을 둔 ‘유산 해석’이다.

## 3 다양한 이야기 반영을 위한 유산 해석과 설명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ICOMOS 사무총장)

### 위험에 처한 유산

- 기후변화, 개발 문제, 과도한 방문객 수, 유산 방치와 외면, 재난과 무력충돌 등 유산은 복잡한 상황들을 직면한다.

- 문화적 다원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해야 한다.
-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격차, 인종차별, 갈등과 정치적 불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늘날에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과제이다.

### 기술 활용으로 인한 혜택과 도전과제(Mondiacult + 40 컨퍼런스 선언 중)

-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재개 및 확장하고, 다양한 언어의 사용과 평화를 촉진시키며,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담론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문화의 힘'
- 디지털 기술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혜택을 가져온다.
-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대한 미흡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이 부재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불균형'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새로운 기회들

- 해석 및 설명 전략 속 수많은 목소리가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다.
- 유산의 다양한 유형적, 무형적 속성들을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 기술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문화적 접근을 반영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디지털 기술은 문화를 보존하고 글로벌 공동체에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 전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무형자산을 되찾는 데 기여한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대중 인식 제고

- 유산 해석과 설명은 유산 가치뿐만 아니라 유산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 유산 해석은 기후변화, 분쟁, 환경적 손실, 미래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이 유산의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 모든 교육 수준에서 문화를 다루는 것은 문화에 기반한 혁신적 발전을 가능케 하고, 문화유산 및 문화적 관습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 교육은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는 다시 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4 유산 해석 원칙과 지침 수립에 대한 도전과제

강소정(UNESCO WHIPIC 연구개발실 전문관)

### 연구 배경 및 초기 목표

- 센터는 '유산 해석 및 설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했다.
- 유산의 역할에 대한 발전된 관점을 반영하여 이 용어들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센터 내외부의 의견, 제안사항, 필요사항들을 파악하여 두 용어의 용법을 명확화하고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 새로운 정의의 활용

- 센터가 재정립하는 정의는 유산 해석 및 설명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한다.
- 동시에, 유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이유와 유산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정의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 정의를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공동체, 당사국, 정책 입안자, 유산관리자 및 유산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유산 관계자들이 스스로 유산 및 유산 가치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념의 발전

- 유산의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온 것처럼, 유산 해석 및 설명의 개념 또한 그러하다.
- 정의를 발전시켜 나갈 거버넌스 구조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용어를 재검토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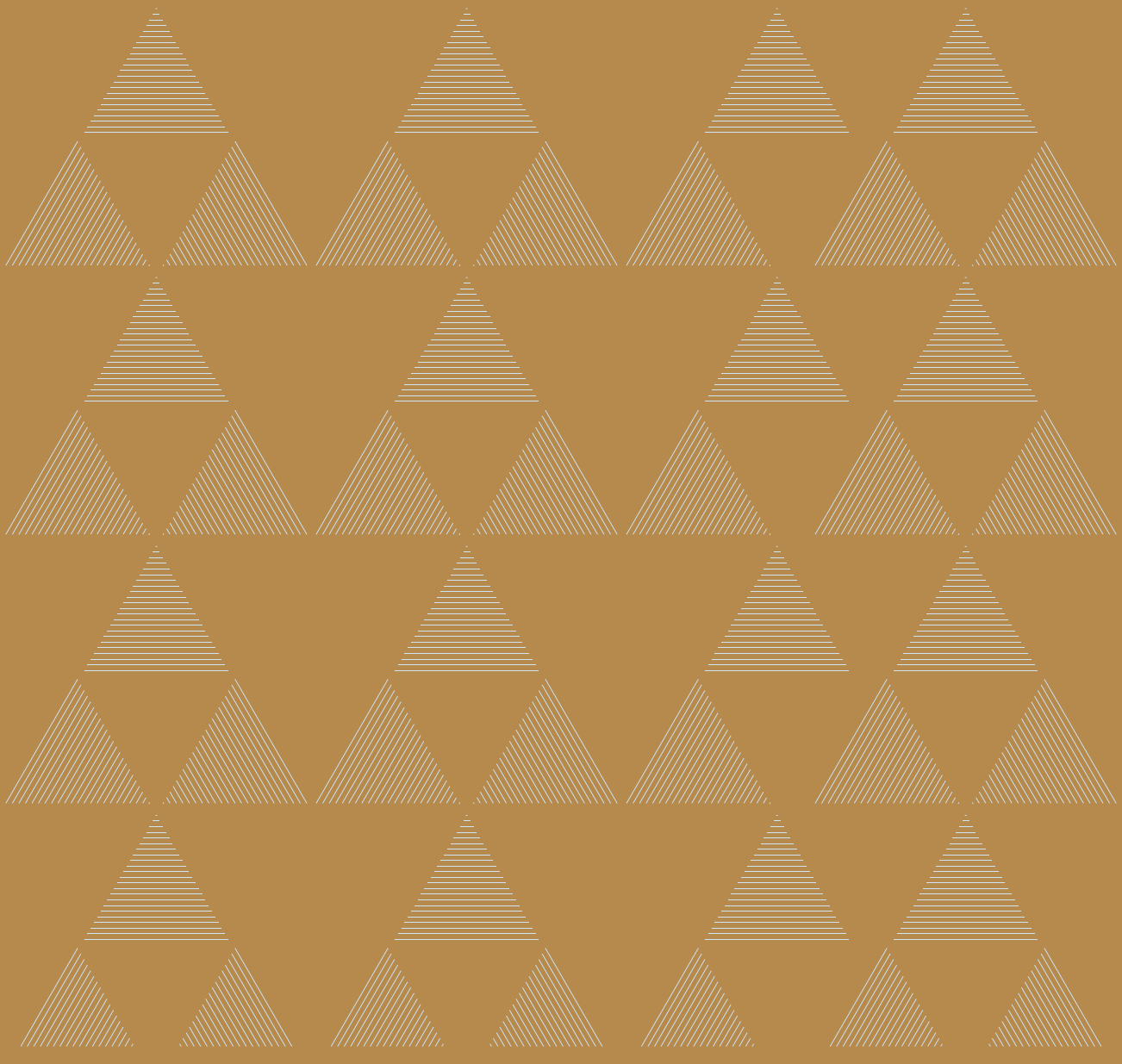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 윤리적 접근법에 대한 제시

- 유산 해석 및 설명이 유산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의사결정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윤리적 접근법을 개발하여 의사결정과 대화진행 방식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 제안해야 한다.

## 4. 결론 및 향후 과제

2022년 세계유산 해석설명 국제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컨퍼런스는 센터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생각들을 통합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세션에서는 유산 해석의 개념에 대한 과거 및 현재진행중인 논의들과, 포괄적인 유산 해석의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유산 설명의 역할과 개념이 무엇인지 공유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인식들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토론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몇 가지 도전과제들과 키워드를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 유산 해석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 구분, 디지털 기술의 활용, 윤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도전과제들과 미래 의제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다른 유산 가치들을 모두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를 반영하고 유산 주체들과 그들이 유산에서 갖는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연구 프로젝트의 향후 과정은 위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다루어 유산 공동체를 위한 원칙과 유산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다.



# VI

# 결론 및 향후 계획

# VI

#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유산의 현대적 개념을 반영하여 유산의 해석과 설명이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분야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시되어 온 접근방식과 인식론을 반영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정의를 재검토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유산 유산 해석과 설명의 새로운 정의를 위해 거버넌스 구조와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전문가 회의, 국제 설문조사, 컨퍼런스로 구성되었다.

**문헌연구**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대적 '해석'의 개념이 유산 분야에 도입된 배경에 대해 '해석'의 정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2008년 문화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에나메 헌장)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도입된 정의와 원칙의 의의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유산 해석'에 대한 현행 정의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정의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현행화 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유산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유산 해석과 설명의 기능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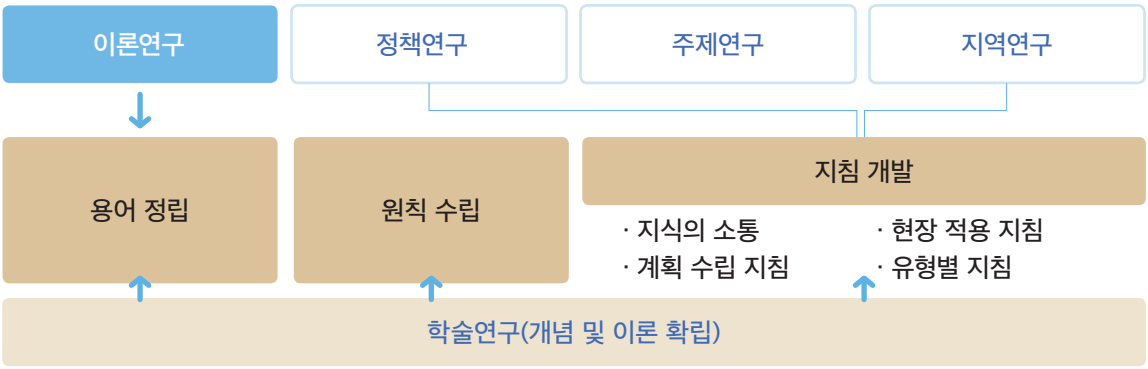
**전문가 회의**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유산 전문가, 해석과 설명 전문가들이 모여 유산 해석과 설명의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유산 해석과 설명의 현대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여 새로운 정의에 필요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논의를 심화하여, '해석'의 개념적 범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산의 보존관리 과정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해석' 정의 문장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회의의 결과로 얻은 것은 정의 문장의 초안뿐만 아니라,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의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유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제 설문조사**에서는 보다 넓은 유산 분야 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회의의 논의 결과인 정의 문장의 초안을 문항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컨퍼런스**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 패널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 정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버넌스 확립, 디지털 기술의 고려, '유산'에 초점을 둔 개념 정립, 해석 윤리 및 윤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연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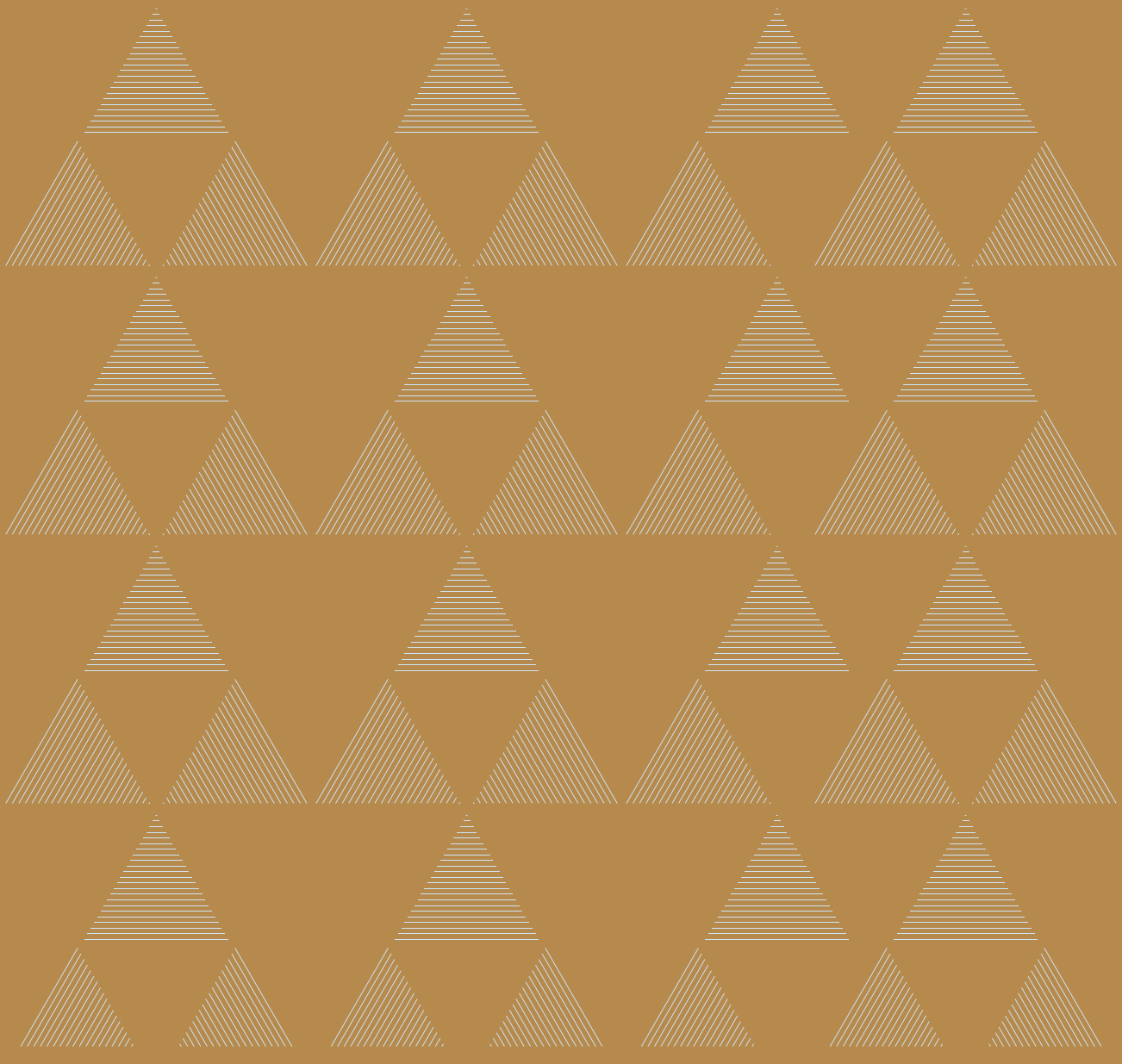



센터의 연구 분야는 크게 이론연구, 정책연구, 주제연구, 지역연구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는 센터의 연구 영역 중 하나인 이론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론연구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이론적 학술연구의 범주에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확립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 갈래이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접근법 연구,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과 정의 검토, 유산 해석과 설명을 실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수립을 포함한다. 그 이후에는 정책연구, 주제연구, 지역연구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하여 차년도에는 심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원칙 수립에 앞서, 올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유산 설명의 용어 정의를 비롯하여, 해석과 설명의 목표, 효과, 대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유산, 박물관학 등 유관 분야와 연관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유산 설명 용어 정의를 위해 관련 개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센터에서 제안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용어 정의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센터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학제적 특성을 갖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에 많은 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에 관한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 및 세계유산 분야로의 적용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기여하기 위한 관점에서 연구 진행했다. 기존에 세계유산에 초점을 둔 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기초적 단계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유산 해석과 설명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세계유산이 지닌 복잡성과 다양성이 더 넓은 범주의 유산에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WHIPIC은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정책적 목표와 국제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참여연구진

## 참여연구진

| | | |
|---|---|---|
| 문헌연구 | 이수정 | UNESCO WHIPIC |
| | 강소정 | UNESCO WHIPIC |
| | 김영재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 | 김병완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 전문가 회의 | Dominique Bouchard | English Heritage |
| | Steve Brown | University of Canberra |
| | Neel Kamal Chapagain | Ahmedabad University |
| | Sarah Court | Independent Heritage Specialist |
| | Manuel Gándara Vázquez | Escuela Nacional de Conservación, Restauración y Museografía |
| | Sue Hodges | ICOMOS ICIP |
| | Eugene Jo | ICCROM |
| | Navin Piplani | Sushant University |
| | Trinidad Rico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 | Mario Santana Quintero | Carleton University |
| | Neil Silberman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 | William Stewart Logan | Deakin University |
| 국제 설문조사 | 김안지 | UNESCO WHIPIC |
|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
| 컨퍼런스 | Leticia Leitao | Independent Heritage Specialist |
| | 김남웅 | UNESCO WHIPIC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개념 2022 - 이론연구 결과보고서**


발 행 인 채수희
총 괄 이재순
기 획 이수정, 강소정
원 고 강소정, 김안지
편 집 · 교 정 Sarah Court, 강소정
번 역 이재인
발 행 일 2022년 12월 30일
발 행 처 재단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https://www.unesco-whipic.org/

디자인·제작 모이엔디자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9, 2층 202호

I S B N 979-11-980698-3-2



©재단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문화재청, 2022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재단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홈페이지(www.unesco-whipic.org)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